



정답과 해설

고등문학



1. 문학의 본질



확인 문제

본문 10~11쪽

- 01 ④ 02 (1) ○ (2) × 03 (1) 형식 (2) 내용 (3) 미적
04 ② 05 (문학의) 윤리적 기능 06 자발적

(1) 문학의 미적 기능

작품

모란이 피기까지는

본문 12~13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⑤ 05 봄, 보람

06 ② 07 ⑤

01 이 시는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우웬네다' 등과 같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모란은 봄이 지나면 이내 저 버리고, 화자는 모란이 진 것을 무척 서운해하고 있다. 따라서 개화가 짧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모란이 피어나는 시기인 봄을 기다리고 있다.
② 화자는 모란이 낙화하자 설움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의 보람도 잃은 상태이다.
③ 화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순간은 모란이 지는 때이다. '뚝뚝'은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④ '삼백예순 날'은 모란이 다시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기다림의 나날이 무척 길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심적 깊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03 이 시는 '모란'과 'ㄴㄹ 테요'의 반복(ㄴ), 리듬감을 주는 울림 소리의 사용(ㄷ), 시행 배열에 따른 호흡 조절, 수미 상관의 구조(ㄹ)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화자는 모란이 지는 것이 자신의 일 년,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잃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자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를 통해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05 모란(㉠)은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다. 화자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 또한 이 모란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란', '봄', '보람'은 화

자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06 봄을 계속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되는 상태'를 뜻하는 부사 '아직(㉡)'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기다림이 숙명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07 봄은 모란이 피어나는 계절이지만 모란이 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화자는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이고 모순된 감정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시구로 표현되고 있다.

(2) 문학의 인식적 · 윤리적 기능

작품

1 수오재

본문 14~17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① 08 ⑤ 09 ⑤ 10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의 기로 삼는다. 11 ① 12 ④

01 이 글은 글쓴이가 큰형님이 지은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달은 일상의 체험을 통해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02 (나)에서 글쓴이는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를 자문자답의 열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에서 '나'라는 것의 특징을 밝혀 '나'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수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 성찰과 수양의 의지를 드러낸 ①의 감상 내용이 적절하다.

03 글쓴이는 서로 대조되는 특징을 지닌 '천하 만물'과 '나'를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ㄱ). 밭, 집, 정원의 꽃나무나 과일나무들, 책, 옷, 양식 등은 누군가가 흠쳐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ㄴ, ㄷ), '천하 만물'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오답 풀이 ㄹ. 글쓴이는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하여, 누가 감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 경전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04 '수오재'는 글쓴이의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으로, 글자 자체로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다. 글쓴이는 '수오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05 글쓴이는 처음에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인 '수오재'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 즉 '나[품]'란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에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의미의 '수오재'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06 '내[품]'은 세상의 이익, 위험, 재앙, 유혹 등에 쉽게 흔들리며(ㄷ),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ㄹ).

오답 풀이 ㄱ. '내[품]'라는 것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ㄴ. '내[품]'은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07 '이때에는 내[품]에게 물었다.'에서 글쓴이가 본질적 자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를 잃었던 과거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08 글쓴이가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현재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와 있다. 하지만 이는 귀양지로 유배된 글쓴이의 처지를 나타낸 것일 뿐, 세속을 떠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글쓴이는 벼슬에 뜻을 두고 과거 공부를 했으며, 조정에서 실제 벼슬살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처지가 바뀌어 귀양 간 상태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자문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내[품]'을 잃지 않았던 큰형님을 떠올리며, 큰형님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수오'를 다짐한다.

09 '엄매인 곳'이 본질적 자아인 '내[품]'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이기는 하나, 학문 연구나 저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를 통해 글쓴이가 벼슬아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미친 듯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글쓴이가 관직에 진출하여 본질적 자아를 잃고 살아갔던 모습을 나타낸다.
③ 글쓴이는 귀양을 가는 처지가 되어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으로 오게 된다. 이곳은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글쓴이가 유배를 온 곳이자 자아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④ '내[품]'을 붙잡아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결국 본질적 자아를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마)에서는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내력이 드러나고 있다. 글쓴이는 자아 성찰을 통해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오재'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수오재'의 기로 삼기 위해 이 글을 썼다.

11 ㉠~㉢은 모두 본질적 자아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은 현상적 자아로, 본질적 자아를 잃은 '나'를 가리킨다.

12 <보기>는 돈을 내며 거울을 닦으면서도, 돈이 들지 않는 '명덕(덕 닦기)'을 게을리하는 세태를 비판한 작품이다. 여기에서 ㉠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가 내세운 대상이지만, 아울러 이 시조의 예상 독자인 '덕 닦기에 게으른 사람들'로도 볼 수 있다. 이 글의 큰형님은 본질적 자아를 지키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에게 겉모습보다 내면의 심성을 닦으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알아두기 박인로, 「자경」

조선 중기에 창작된 연시조로 총 3수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명덕(明德)과 팔덕(八德)에 대한 수양을 권면하며 유교적인 수양을 강조한 작품이다.

갈래	연시조	성격	경제적
제재	덕행과 우국		
주제	덕 닦기를 게을리하는 세태 비판		
특징	• 명경과 명덕을 대조하여 덕행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우려 함. • 의문문의 형식으로 부정적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냄.		

작품 2 산속에서

본문 18~19쪽

01 ① 02 ⑤ 03 ⑤ 04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
05 ② 06 ②

01 이 시는 '불빛', '어둠'과 같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이라는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02 이 시의 화자는 '나그네'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⑤이다. ⑤는 김남주의 시 「고목」의 일부분으로, 이 시의 화자는 '길손'에게 '그들'이 되어 줌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오답 풀이 ①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불'을 통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정화되고, '물'이 흐르는 평화와 화합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세가 드러난다.
② 고재중, 「첫사랑」: 상처 입은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는 모습을 통해, 아픔을 겪은 후 성숙한 사랑의 자세가 드러난다.
③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새순'이 돋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밀동'이 잘리는 것과 같은 삶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적 자세가 드러난다.
④ 박재삼, 「흥부 부부상」: '떡방아 소리'가 없어도 있는 것과 다름없이 웃을 수 있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통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낙천적인 자세가 드러난다.

03 이 시에서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심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04 이 시에서 시련(외로움, 절망 등)을 겪어 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 '나그네'이며, 이 중 5여절로 이루어진 표현은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시련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이다.

05 이 시에서 긍정적인 시어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로, 이들은 희망, 위안, 위로 등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인 시어는 ‘어둠’과 ‘밤’으로, 이들은 고난, 슬픔, 시련 등을 의미한다.

06 〈보기〉에는 이 시를 읽고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보기〉의 학생은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보기〉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단원 평가



본문 20~23쪽

01 ④ 02 ⑤ 03 ② 04 삼백예순 날 05 ④ 06 ④
07 ③ 08 ① 09 ④ 10 ③ 11 ② 12 ② 13 ④
14 ④ 15 어둠, 밤

01 이 시의 1~2행은 개화(희망), 3~10행은 낙화(실망), 11~12행은 개화(희망) 현상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개화와 낙화는 모란의 피고 짐을 가리킨다.
② 떨어짐과 시들은 하강적·부정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③ 생의 양면성에 대한 심화된 인식은 ‘찬란한 슬픔’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다. 이는 꽃이 피어 있을 때에는 찬란함과 기쁨을 느끼지만, 이내 지므로 슬픔을 느낀다는 점에서 비롯된 말이다.
⑤ 개화와 낙화, 즉 생성과 소멸의 양면성 내지 모순성이 이 시를 지배하는 존재론적 양상이다.

02 ‘모란이 툭툭 떨어져 버린 날’에서 음성 상징어인 ‘툭툭’이 사용되어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이 감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표현은 독자에게 미적 감동을 줄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 도치법이 사용된 부분은 마지막 행인 12행이다.
② 이 시에서 직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시에서는 ‘-르테요’, ‘우웬네다’와 같이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섬세한 정서를 부드러운 어감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모란이 피고 지는 데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시적 대상인 모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찬란한 슬픔의 봄’에는 모란이 피어 있을 때의 기쁨과 질 때의 슬픔, 즉 상반되는 감정이 복합되어 있다.

03 1~2행의 ‘봄’과 ‘모란’은 화자가 기다리는 소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상 대응된다. 이 두 소재의 대응 관계는 3~4행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②의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웬네다’에서 ‘삼백예순 날’은 화자가 모란이 다시 피어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표현은 기다림의 나날이 무척 길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슬픔과 섭섭함, 상실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고 있다.

05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과거에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알아두기 피천득, 「은전 한 닢」

이 작품은 오랜 노력 끝에 은전 한 닢을 얻고 기뻐하는 거지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집착, 성취의 기쁨 등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다.

갈래	경수필, 서사적 수필
성격	서사적, 회상적, 체험적, 극적
제재	은전 한 닢
주제	•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그 성취의 기쁨 • 인간의 맹목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
특징	• 담담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서술함. • 줄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한 편의 콩트처럼 긴밀하게 구성됨. • 끝부분에서 논평이나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함.

06 은전은 거지가 갖기 힘든 큰 액수의 돈이었으므로, 거지는 여섯 달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액수의 돈을 모아 은전 한 닢을 겨우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은전 한 닢은 거지에게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07 이 글의 거지는 수많은 동전을 모아 각전으로 바꾸고, 또 각전을 모아 다양 한 푼으로 바꾼다. 다양 한 푼을 얻는 데에 여섯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거지는 이 은전을 갖고 무척 기뻐한다. 이렇듯 거지는 고생 끝에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고 행복해하고 있으므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움.’을 의미하는 ‘고진감래(苦盡甘來)’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말한다.
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말한다.

08 거지는 ‘나’가 자신의 은전을 빼앗을까 봐 불안하여, 돈을 왼손을 가슴에 숨기고 달아나려고 한다. 이런 거지의 불안함을 눈치챈 ‘나’가 거지를 안심시키려 하자, 거지는 한참 머뭇거리며 ‘나’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다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09 ㉠은 거지의 맹목적인 소망을 보여 주는 말로,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글쓴이의 논평 없이 ㉠으로 글이 마무리됨으로써 독자가 뒷이야기를 상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와 여운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 이 글은 자문자답을 통해 ‘수오재(守吾齋)’의 의미를 밝히고 있으며(ㄴ), 천하 만물과 ‘나[吾]’를 대조하여 ‘나[吾]’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ㄱ). 또한 밭, 집, 정원의 나무, 경전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천하 만물의 속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르. 이 글에 우화(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ㅁ. 이 글에 글쓴이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吾]’의 속성을 천하 만물과 대조하여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얻은 ‘해답’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천하의 만물은 남이 훔쳐 가거나 없애 버리기 어렵고, 없어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지만, ‘나[吾]’는 잃어버리기 쉬우나 돌이키기는 어려우므로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②가 가장 적절하다.

12 ‘성현의 경전(㉔)’은 ‘나[吾]’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예일 뿐, 글쓴이에게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준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수오재’는 글쓴이의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글쓴이는 이 이름의 의미를 깨달은 후, ‘수오재’의 기로 삼기 위해 이 글을 썼다.
 ③ 글쓴이는 조정에 나아가 12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길을 뛰어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관직 생활을 하다가 한강과 문경 새재를 지나 기정(바닷가의 대나무 숲)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⑤ 글쓴이의 큰형님은 ‘태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았다. 따라서 ‘태현’은 큰형님의 본질적 자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13 이 시의 화자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보다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쉬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심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동생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려고 노력하는 지민(㉔)이다.

14 [A]에서는 목적어인 ‘터덜거리며 걸어진 길 끝에 /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서술어 뒤에 둌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치법이 사용된 것은 ④로, 여기에서는 주어인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을 마지막에 배치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슬픔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② 김소월, 「초혼」: 반복과 영탄을 사용하여 화자의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③ 김수영, 「눈」: 문장을 반복 변주하여 생명력을 지닌 눈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⑤ 이성부, 「벼」: 벼를 의인화하여 고난을 이겨 낸 민중의 모습과 겸손한 자세로 서로 어울리는 민중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15 ‘불빛(㉔)’은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 등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반면 ‘어둠’과 ‘밤’은 고난, 슬픔, 시련 등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확인 문제

본문 27쪽

01 (1) 내용 (2) 주제 의식 02 ㉔ 03 (1) ○ (2) ○ (3) ×

작품 1 가는 길

본문 28~29쪽

01 ㉔ 02 ㉔ 03 ㉔ 04 ㉔ 05 ㉔ 06 ㉔

01 수미 상관의 구조란 시가에서 첫 연을 끝 연에 다시 반복하는 문학적 구성법으로, 이 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자연물인 ‘까마귀’와 ‘강물’을 통해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화자의 슬픈 정서를 간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② ‘그림자 / 말을 할까(7) / 하니 그리워(5)’와 같이 이 시는 대체적으로 7·5조의 민요적 율격을 보인다.
 ③ 이 시는 유음 ‘ㄹ’과 비음 ‘ㄴ, ㄹ, ㅇ’이 사용되어 음악성과 함께 강물이 흐르는 듯한 시적 효과를 얻고 있다.
 ④ 이 시는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애상적인 어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2 이 시는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의 1·2연 역시 4음보가 아닌 3음보의 율격을 보인다.

03 이 시의 1연은 문장 구조상 2행에 있어야 할 ‘하니’를 3행에 놓음으로써, 읽을 때 시간적 거리감을 주고 이별의 상황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망설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04 ㉔의 ‘그냥 갈까’는 이별에 대한 화자의 망설임을 드러낸 표현으로, 이별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5 ㉔는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동시에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객관적 상관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④의 ‘풀벌레 소리’로, 이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과 비통함이 투영되어 있는 소재이다. 한밤중의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기침’은 현실에 대한 저항과 자기 정화의 의미를 지닌 상징적 소재이다.
 ② ‘새’는 어둠이 잉태하여 낳는 물상의 일부이다.
 ③ ‘별’은 동경의 세계, 화상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⑤ ‘꽃’은 시적 대상으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06 이 시에서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이다. 이는 또한 끝없이 흐르는 시간 및 이별의 이미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작품

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본문 30~39쪽

- 01 ④ 02 황만근이 없어졌다. 03 ⑤ 04 ① 05 ④
06 ④ 07 ① 08 ⑤ 09 ③ 10 ⑤ 11 바보
12 ② 13 ① 14 ② 15 ③ 16 ③ 17 ④
18 ② 19 ⑤ 20 ④ 21 ④ 22 ① 23 ②
24 ③

01 황만근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혼자서라도 쫓겨 대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장의 지시 때문에 경운기를 끌고 그곳에 간 것이다.

02 '황만근이 없어졌다.'와 같이 그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것은 독자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여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황만근의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 방식의 발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03 '만그인지 반그인지'라는 표현은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적 표현이다. ⑤의 '시집살이 개집살이'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 ② '아아'에는 영탄법이, 시구 전체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③ '소리 없는 아우성'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내 마음은 호수요'에는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한 은유법이, '나는 그대의 ~ 부서지리다.'에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는 나의 모습을 '옥'에 비유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04 ㉠에는 황만근에게 고생스러운 일을 시켜 놓고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이장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또한 본인 때문에 벌어진 황만근의 실종을 황만근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이장의 태도와 가장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듣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인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오답 풀이 ②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전전긍긍(戰戰兢兢):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작심삼일(作心三日):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5 이장은 자기를 몰아세우는 민 씨에게 화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황만근을 무시하며 이용하는 이장과 달리, 민 씨는 황만근에 대해 인간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 ② 민 씨는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 이장에게 논리적으로 따지며 책임을 묻고 있다.
③ 이장은 다른 동네 이장들도 트럭을 타고 갔다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⑤ 이장은 자신이 바쁜 입장이라며, 이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핑계 삼아 방치대로 하지 않은 본인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06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말이 된 노인들에게는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07 (마)에서는 황만근이 마을에서 한 일을 황영석, 여씨 노인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황만근의 이타적인 모습과 대조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황만근의 착한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08 ㉠의 "만근이도 알 까다."는 황만근이 아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알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황만근이 자연의 이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사)~(자)에서는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10 민 씨는 도시 생활을 하다가 황씨 집성촌인 신대 1리로 귀환한 인물이며, 황씨 집안에 데릴사위로 온 사람은 노 씨이다. 따라서 ⑤의 설명은 옳지 않다.

11 "희한할세, 바보가."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편견이 담긴 문장으로, 특히 '바보'는 이를 함축하여 나타내는 말이다.

12 ㉠의 '타성바지'는 '자기와 다른 성(姓)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13 ㉠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식성에 따라 밥상을 따로 차리는 황만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황만근의 모습에서 황만근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깊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으며,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하라는 ①이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달빛 아래 낙엽에 앉아 자연을 즐기며 소박한 술과 나물을 먹고자 하는데, 이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 ③ 비유를 통해 현실에 대한 순응을 권유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절개가 잘 드러나 있다.
⑤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절실함이 잘 드러나 있다.

14 황만근은 사람들이 밭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황만근이 실제로 밭을 췌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마음고생도 나타나 있지 않다.

15 (파)는 민 씨가 서술한, 지금까지의 황만근의 삶에 대한 평가이다. 그의 우직하고 이타적인 삶을 예찬하고 있으나 이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황만근'이라는 호칭에서 '황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높여 부름으로써, 황만근에 대한 서술 방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② '전(傳)'은 고전 산문의 갈래로, '인물의 행적-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파)는 고전 문학의 양식인 '전(傳)'의 형식을 활용하여 황만근의 생애(행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파)에는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하는 황만근의 이타적인 면모가 제시되어 있다.
- ⑤ (파)에서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라는 내용은 황만근을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와 다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16 황만근은 마을의 온갖 굵은일을 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황만근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공치사를 하며 황만근을 무시한다. 이러한 황만근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황재석의 말은, 황만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17 경운기가 황만근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는지의 여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황만근은 고장 난 경운기를 타고 궤기 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타)를 통해 실종되었던 황만근이 끝내 죽어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 ② 경운기는 부지런한 황만근의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대상이다.
- ③ (가)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황만근의 경운기는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을 걸 수조차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경운기를 타고 가야한다는 지침은 황만근만 지켰을 뿐, 정작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18 ⑥는 황만근의 경운기를 가리키는 말이며, 나머지는 모두 황만근을 가리키는 말이다.

19 '묘비명'이라는 형식은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효과가 있으며,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황만근의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거)~(터)에 그의 일대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20 황만근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아무도 없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백 리 길을 달려 군청까지 가다 보니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21 (거)~(터)에서 민 씨는 그의 삶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예찬하고 있다.

22 ㉠의 '부친'은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한'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은 ㉠이다.

- 오답 풀이** ②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저냐, 전병(煎餅)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든다.'를 의미하는 말이다.
- ③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를 의미하는 말이다.
- ④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를 의미하는 말이다.
- ⑤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를 의미하는 말이다.

23 농사를 짓지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땅이 내어 주는 곡식만큼만 얻는다는 의미로, 억지로 농악이나 비료 등을 써서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24 ㉡의 앞 문장을 통해 민 씨가 황만근을 ㉡과 같이 평가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황만근이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성실하고 이타적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원 평가



본문 40~43쪽

- 01 ㉠ 02 ㉠ 03 ㉠ 04 ㉠ 05 하니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고
장 난 경운기 15 ㉠ 16 ㉠ 17 황 선생 18 ㉠

01 (가)는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 심리와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을 대조하여,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긍정적 존재인 '나'와 부정적 존재인 '너'를 대조하여, 이기적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불완전한 문장으로 여운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가)이다.
- ② (나)에만 '갸다'를 통해 의지적 어조가 나타난다.
- ③ (가)와 (나)에 영탄법은 쓰이지 않았다.
- ④ (나)에만 '너(기쁨)'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알아두기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이 작품은 슬픔을 화자로 하여 현대인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한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비판적, 의지적, 박애적
제재	슬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촉구
특징	• 슬픔을 화자로 하여 기쁨의 행동을 질책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함. • 슬픔과 기쁨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슬픔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함.

02 (가)의 1~2연은 이별에 대한 화자의 내면 심리(선정(先情))를, 3~4연은 이별의 외적 상황(후경(後景))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에는 선정 후경(先情後景)의 구성 방식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03 (가)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을 망설이고 안타까워한다. 화자의 이러한 내적 갈등은 '말을 할까', '그냥 갈까', '다시 더 한 번'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04 '말을 할까', '그냥 갈까'는 화자의 미련과 망설임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말을 할지 말지, 갈지 말지에 대한 자문이다. 따라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05 ‘하니’는 문장 구조상 2행에 있어야 하지만 3행에 놓여 있다. 이는 행간 걸침으로, 읽을 때 시간적 거리감을 주고 이별의 상황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망설임을 잘 드러낸다.

06 ‘서산에는 해 진다고(㉔)’는 화자가 이별을 해야 하는 시간적 상황으로, 시간의 촉박함을 나타내어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한다. ㉔은 이별을 재촉한다는 점에서, 이별을 망설이며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와 대립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그립다’는 화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② 말줄임표를 통해 미련과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④ 앞에서 뒤로 계속 흘러가는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표상한다.
 ⑤ ‘강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말하며, 이별을 망설이고 있는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07 (가)의 ‘까마귀(㉑)’는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동시에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반면 <보기>의 ‘가마귀(㉒)’는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불안하고 답답한 정서를 나타내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㉑는 객관적 상관물이고 ㉒는 감정 이입의 대상일 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거나 시상의 전환을 유도하지 않는다.
 ③ ㉑는 화자의 발걸음을 재촉할 뿐 시상을 집약하지는 않는다.
 ⑤ ㉒는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다.

알아두기 **김소월, 「길」**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비애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전통적, 민요적
제재	길		
주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비애		
특징	• 감정 이입의 대상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 집을 잃고 떠도는 나그네의 애달픈 처지를 그림.		

08 도치법은 정상적인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정서의 변화를 유발하는 표현 기법이다. (나)에는 도치법을 활용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② 이 시는 ‘너에게’라고 말하며 듣는 사람을 설정하여,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화자는 ‘슬픔’을 긍정적 존재로, ‘기쁨’을 부정적 존재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대상의 일반적인 속성을 교차시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겠다’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는 동시에 ‘나’의 생각을 ‘너’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은 삭막한 현실에서 슬픔이 사랑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09 13행의 ‘기다림’은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소중히 여기는 ‘너’에게 주려는 것으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 (나)에서 ‘슬픔’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품는 아름다운 존재를 의미한다. ④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을 돕는 사례이므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의감으로 한 행동이나 도움을 받은 대상이 소외된 이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⑤ 자신의 직업과 임무에 충실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거리가 멀다.
 ③ 친구를 위로한 것은 타인에 대한 따뜻한 사랑에서 비롯한 행동이지만, 도움을 받은 대상이 사회적 약자와 거리가 멀다.

11 ㉔의 ‘함박눈’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 오답 풀이** ①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를 놓고 추위에 떨며 장사하는 ‘할머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즉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② 문학 작품에서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의 ‘어둠 속’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는 추위로 인해 죽었다. 여기서 ‘다시’라는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동사자는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또 한 번 죽었음이 강조된다.
 ④ 가마니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그나마 손쉽게 덮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가마니 한 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12 (가)~(라)는 서술자가 전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속사정, 인물의 심리 변화까지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시점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라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 해서’에 발음의 유사성(‘반근’과 ‘반근’)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사용되고 있다.
 ② (나)의 이장의 말에 지역 방언이 사용되고 있다.
 ③ 이 글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실종을 둘러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이 글은 ‘황만근이 없어졌다.’와 같이 주인공의 실종을 알리는 표현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13 일주일 만에 황만근의 유골이 돌아온 것은 맞지만, 그의 경운기는 수레 없이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따라서 황만근이 자기가 탔던 경운기에 실려 돌아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황만근은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까 말까한 한밤이면 돌아왔고, 외박을 한 적은 평생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황만근은 동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등의 마을 일을 동네 사람 그 누구보다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궤기 대회의 투쟁 방침이 경운기를 끌고 가는 것이며, 이장은 경운기가 아니라 트럭을 타고 궤기 대회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민 씨는 이장에게 궤기 대회에 아무도 경운기를 끌고 가지 않았는데 황만근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하는 이유, 이장이 투쟁 방침을 지키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다.

14 황만근이 고장 난 경운기를 타고 궤기 대회에 참석한 것은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황만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15 황만근이 남이 꺼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선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정신이 강한, 이타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에 호기심을 느끼는 황만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6 (가)에서 황만근이 하늘이 내린 효자로 어머니 봉양을 극진하게 하였으며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혼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②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知)가 돌아왔다.',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도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17 (가)의 시작 부분에서는 '황만근, 황 선생은'이라며 황만근을 높여 호칭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인 민 씨가 황만근을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18 <보기>는 '돈(염전)'을 의인화하여 돈의 폐해를 비판한 가전이다.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인물의 행적→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전'의 형식적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전'의 형식을 활용할 경우,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작가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역순행적 구조를 활용하고 있지만, <보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해학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이 글의 서술자는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예찬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공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비판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사물의 의인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보기>에서는 사물인 '돈(공방)'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임춘, 「공방전」

이 작품은 고려 무신 정권 시기의 문인인 임춘이 지은 것으로, 돈(염전)을 의인화하여 돈의 폐해를 비판한 가전이다.

갈래	가전(假傳)
성격	우의적, 풍자적, 교훈적, 전기적
제재	돈(염전)
주제	재물을 탐하는 세태 경계, 경제(經世) 비판
특징	- 사물을 의인화하여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냄. - 전기(傳記)적 구성을 사용하여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 공방의 생애를 서술함.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소통

확인 문제

본문 45쪽

01 ④ 02 ④ 03 상호 소통

작품

1



눈물

본문 46~47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⑤ 05 ② 06 ④

01 이 시에서 시인은 일반적으로 슬픔의 의미를 지닌 '눈물'을 '작은 생명'으로 해석하며, 눈물을 생명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시인은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이 시에서 눈물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슬픔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흙도 티도 / 금 가치 않은 /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 순결하고 온전한 존재, 가장 값진 존재 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03 <보기>는 시인이 이 시의 창작 배경을 밝힌 것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04 ㉠~㉢의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흙도 티도 / 금 가치 않은 / 나의 전체', '더욱 값진 것',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은 모두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그러나 ㉣의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절대자'를 이르는 것이다.

05 ㉠의 '꽃'과 ㉢의 '웃음'의 상징적 의미는 삶의 기쁨, 일시적인 것,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이것은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열매'나 '눈물'과 대조되는 시어이다.

06 <보기>는 '차고 슬픈 것',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결합하여 표현하고 있다. '차고 슬픈 것'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슬픈 것')과 차가운 이성('차고')으로 슬픔을 억누르는 감정이 병치되어 나타나며,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는 자식의 죽음과 다시 만날 수 없는 둘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외로운' 감정과 그러면서도 입김이나 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식을 느낄 수 있다는 데서 오는 '황홀한' 감정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는 '절대자의 은총으로서의 눈물의 의미'라는 화자의 깨달음을 엿볼 수 있으나, <보기>에는 화자의 슬픔이 제시되어 있을 뿐 깨달음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이 시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식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다.

- ③ 이 시에는 '나'라는 화자가 시 속에 직접 제시되어 있으나, <보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보기>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알아두기 정지용, 「유리창」

이 작품은 감각적인 이미지를 구사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과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감각적, 회화적
제재	유리창	주제	자식을 잃은 슬픔
특징	• 화자의 슬픔을 극도로 절제하여 차분한 어조로 표현함. •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함. •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결합한 대위법이 나타남, 역설적 표현이 사용됨.		

작품 2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본문 48~57쪽

-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⑤ 09 ⑤ 10 ② 11 ⑤ 12 ②
 13 ① 14 ③ 15 ① 16 ③ 17 ⑤ 18 ③
 19 ③ 20 ④ 21 ④ 22 ③ 23 ① 24 ②
 25 무슨 돈이 있다구! 26 ④ 27 ④ 28 ④

01 이 글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룬 소설이다. 제시된 부분의 서술자는 작품 내에 있는 '나(영수)'이다.

02 어머니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매번 좌절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통장이 '나'의 집에 가져온 것은 철거 계고장으로, 이것을 통해 '나'의 집이 철거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어머니를 위해 '나'가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는 데서 어머니가 글을 못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가 자신의 삶을 '지옥'이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철거 대상인 집에서 산다는 것 등을 통해 '나'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만 볼 뿐 내재적인 면은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3 [A]는 철거 계고장으로, 난쟁이 가족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집을 철거해야 함을 알려 주는 통지문이다. 여기서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지역 이름은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난쟁이 가족의 참혹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04 ㉔의 '그들'은 '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만 취급하고 신체적인 특징 외에는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05 '나'는 자신의 가족의 삶을 '지옥'과 '전쟁'에 비유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㉔는 난쟁이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06 '철거 계고장'은 난쟁이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 처지임을 드러내는 것(㉑)으로, 재개발을 둘러싼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㉒)이다.

07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집을 허물게 된 사건의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의 관찰과 그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8 아버지는 '난쟁이'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인물이다. 이는 사회적 결핍으로 이어져, 경제적 빈곤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09 (라)에서는 공고문에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하였다. 입주권을 사기 위해 거간꾼들이 몰려든 것은 맞지만, 더 많은 보상을 위해 거간꾼들에게 입주권을 팔 것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10 '난쟁이'는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인물이며, 이는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을 상징한다. 즉, 작가는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㉔는 난쟁이 가족이 그 건물의 거주자였음을 증명해 주는 소재로, 이것이 있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12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제공된 '아파트 입주권(㉔)'은 사실상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부족하여 입주를 포기하고, 입주권을 싼 값에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사회적 폭력(㉒)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㉑)을 의미한다.

13 이 글은 총 3부작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1부의 일부분이다. 제시된 부분은 인물들 간의 대화로 보아 '나'가 영수인 것을 알 수 있다.

14 철거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는 체념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 비해, 영호는 "팔긴 왜 팔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철거에 대해 저항적임을 알 수 있다.

15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처럼 '팬지꽃'은 영희의 위치와 함께 서술되는 것으로, 순수하고 어린 영희의 이미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A]에서 '나'는 자신이 맡은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것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7 ㉔은 집을 헐러 오는 사람들 옆에는 법이 있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뜻으로, 당대 법의 부조리함과 냉혹한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18 ㉔의 '풀 냄새'와 ㉔의 '고기 굽는 냄새'는 그 의미가 대조적인 소재이다. '풀 냄새'는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의미하고, '고기 굽는 냄새'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

19 (자)의 마지막 문장인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를 통해 아버지의 집안 역시 대대로 노비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자)에서 '나'는 자신의 조상이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고 하였다.
- ② (자)에서 어머니는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라며 난쟁이가 가족의 가난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아)에서 '나'는 가난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⑤ (아)에서 '나'가 고기 냄새를 맡으러 간 사실을 영화가 어머니에게 이르자, '나'는 영화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가 때려 주었다.

20 (자)에는 노비제로 인해 가족 대대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온 난쟁이가 가족의 내력이 드러나 있다. ④의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모두 옛말이 되고, 오늘날 부모의 재력과 학력이 자식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회 문제는 난쟁이가 가족의 삶의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다.

21 어머니가 ㉔처럼 이야기한 것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나'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 '나'는 자신 가족의 가난한 삶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23 (차)에서 '나'의 할아버지는 노비에서 해방되며 늙은 주인에게 집과 땅을 받았지만, 어떤 교육이나 경험이 없었기에 그것을 못 지켰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② (차)에서 '나'의 증조부 내외는 노비제 해방을 맞고도 자신들을 내쫓지 말라고 말한다. 따라서 '나'의 조상들이 노비제에서 해방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뒷부분 줄거리'에서 영화가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가 입주권을 훔쳐서 나온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오래전부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 ④ '나'의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업자들을 피해 도망을 다녔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뒷부분 줄거리'를 통해 아버지가 이사 가기 전날 사라진 후에 자신이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 ⑤ 노비제에서 해방된 '나'의 조상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를 통해 교육을 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4 (카)를 통해 기존 거주자들을 위해 시에서 이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제공받은 이주 보조금으로는 돈이 모자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이주비라도 제공해야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25 (카)에서 어머니가 말한 "무슨 돈이 있대구!"를 통해, 난쟁이가 가족이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6 '작은 꿈'은 난쟁이의 꿈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현실에 만족하여 소박한 꿈만 꾸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㉔을 통해 행복동 주민들의 공통된 사정을 알 수 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사실에 명희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명희 어머니는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며 '나'의 어머니에게 열린 서둘러 입주권을 팔 것을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명희 어머니가 가난한 난쟁이가 가족을 무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8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동떨어진 행동으로, 아버지의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3

+

참새

본문 58~61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③	05 ⑤	06 ④
07 ②	08 ②	09 ④			

01 (가)에서 글쓴이는 참새 소리를 '파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 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대는 소리'라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마)에서 글쓴이는 새보는 일이 대개 소녀들의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어린 시절의 '나'가 대부분의 시간에 새를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던 사람은 목단이다.
- ③ 우리 집 앞 논에 새가 오기는 하였지만, 일부러 기르던 곳은 아니었다.
- ④ (가)에서 글쓴이는 꿈에서 들린 참새 소리에 아침인 줄 알았으나, 꿈에서 깨 시계를 본 시간은 새벽 세 시였다.
- ⑤ (마)를 통해 목단이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나'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은 밤을 까서 '나'에게 주었음을 알 수 있다.

02 (나)에서 참새는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즉, 참새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새임을 알 수 있다.

03 ㉔는 새들을 쫓는 행위이고, 나머지 ㉔~㉔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로 참새를 대하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태도이다.

04 ㉠의 ‘참꽃’은 삼천리강산 가는 곳마다 있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다고 하였다. ㉡의 ‘참새’ 역시 우리나라 곳곳에 있고 집집마다 살고 있는 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꽃’과 ‘참새’ 모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05 이 글에서 글쓴이는 참새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후덕한 정서와 풍요로운 마음을 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참새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보기>에 나타난 참새는 농민들을 수탈하며 부정을 일삼는 탐관오리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이제현, 「사리화」

이 작품은 고려 말기 학자인 이제현이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관(官)의 수탈 때문에 백성이 가난해지는 것을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데에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갈래	정형시, 한시, 7언 절구
성격	풍자적, 상징적, 현실 비판적
제재	참새
주제	권력자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한 원망, 수탈로 인한 농민들의 피폐한 삶
특징	• 권력자들의 수탈과 횡포를 비유적으로 고발함. • 당시 민족적 현실을 풍자하여 나타냄.

06 글쓴이는 참새 소리를 들으며 상념에 빠지는 사색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참새라는 평범하고 흔한 대상에 대한 애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다른 생명체와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는 오늘날의 삭막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07 (바)~(자)에서 글쓴이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과거와 달리,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는 오늘날의 삭막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의 날개 다친 제비를 보살피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므로 (바)~(자)에서 비판할 대상이 아니다.

08 이 글에 따르면 ‘복 마을’은 참새가 많이 모이는 마을을 이르는 말로, 참새가 모이는 마을의 특성 때문에 지어진 명칭이다. 이는 양지가 바르고 잔풍한 곳,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 난알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어 부유한 마을을 택하는 참새의 특징과 관련 있다.

09 「구운몽」은 주인공인 성진이 꿈을 통해 양소유로 환생한 뒤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현실 속 노승의 부름을 계기로 참된 삶을 회복하게 되는 성진의 깨달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참새」의 글쓴이가 이 이야기를 글 속에 반영하여 드러낸 까닭은 「구운몽」의 주인공 성진처럼 우리 역시 되찾아야 할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알아두기 김만중, 「구운몽」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에 문인 김만중이 지은 장편 소설이다. 인생의 덧없음과 불법(佛法)을 통한 허무의 극복을 주제로 하고 있다.

갈래	국문 소설, 몽자류 소설, 염정 소설
성격	불교적, 전기적
제재	꿈을 통해 도를 얻는 과정
주제	인생무상(人生無常)의 깨달음과 불법 귀의
특징	유·불·선 사상이 모두 나타나, 불교의 공(空) 사상을 중심으로 함.

단원 평가

본문 62~65쪽

- 01 ㉠ 02 ㉡ 03 ㉢ 04 유리 05 ㉢ 06 ㉡
07 철거 계고장 08 ㉡ 09 ㉢ 10 ㉡ 11 ㉠ 12 고
기 굶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 13 ㉡ 14 ㉢ 15 참새 소
리(네 소리) 16 ㉢

01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어린 자식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하려 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구사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과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02 (가)의 화자는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달래고 있다. 인간이 신(神)과 같은 절대자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가장 순결하고 값진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개인적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03 ‘산새’는 나뭇가지에 잠시 머물렀다가 날아가는 산새같이 허망하게 떠난 어린 자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새’는 죽은 자식을 비유하는 표현이므로, 화자의 고통을 잊게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04 (나)에서 화자는 유리에 입김을 불어 보며 그것에 비치는 환영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시어 ‘유리’는 안과 밖의 경계이자 이승과 저승의 경계이면서도, 화자와 죽은 자식 사이의 단절과 소통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05 (가)에서 상징적 의미가 동일한 시어는 삶의 기쁨, 일시적인 것,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의 ‘꽃’과 ㉡의 ‘웃음’이다. 반면, 대조적인 의미로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의 ‘열매’와 ㉣의 ‘눈물’은 서로 동일한 의미의 시어이다.

06 (라)에서 “팔긴 왜 팔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영호의 모습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07 ‘철거 계고장’을 통해 난쟁이 가족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것이며,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임을 알 수 있다.

08 (가)에서 ‘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난쟁이로 보았다고 하며, 그것 하나만 옳았다고 하였다. 즉, 사람들이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내적인 면은 도외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09 ‘낙원구 행복동’은 난쟁이 가족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정 구역 이름이다. 이곳의 주민들 및 난쟁이 가족은 자진 철거를 명령받아 난처해하고 있으므로, 동네의 명칭과는 다르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반어적인 표현은 주민들 및 난쟁이 가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10 (라)에서 명희 어머니와 입주권 매매에 대해 의논한 후 어머니가 괴로운 얼굴을 한 것은 입주권이 있어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입주권을 팔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즉, 행복동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대안이 없어 막막했기 때문이다.

11 ‘나’가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한 이유는 해야 할 일의 분량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일 뿐, 시대상과 관련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답 풀이 ①, ③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층은 입주권이 있어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입주권을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④ 아파트는 ‘나’가 살던 곳을 허물고 새로 건축될 것으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한다.
⑤ ‘나’의 조상들은 노비였으며, 조상들의 가난이 ‘나’의 가족에게까지 이어졌다. 이는 조상의 경제력이 후대까지 세습되는 시대상을 보여 준다.

12 (가)에서는 자본과 권력이 있는 이들의 삶과 관련된 ‘고기 굽는 냄새’를, 도시 빈민의 삶과 관련된 ‘풀 냄새’에 대비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주머니가 달린 옷’과 ‘주머니가 없는 옷’을 대비하고 있다.

13 이 글은 참새에 대한 상념을 바탕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삭막한 현대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담담한 회고적 필치와 소박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삭막해진 현대 사회에 대한 글쓴이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14 (라)에서 글쓴이는 고전 소설 「구운몽」의 독서 경험을 반영하여 성진처럼 우리도 되찾아야 할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5 (라)의 ‘잠결에 스쳐 간 참새 소리’를 통해 글쓴이가 꿈속에서 참새 소리를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잠결에 스쳐 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를 통해 잠에서 깬 글쓴이가 참새 소리로 인해 상념에 잠겼으며, 이는 철학적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 ㉔의 ‘풍상’은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보잘것없이 매마르고 소산한 풍경’은 ‘살풍경’이라는 단어의 뜻풀이에 해당한다.

(3)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확인 문제

본문 67쪽

01 ② 02 계획하기 03 ④

작품

1



꽃

본문 68~69쪽

01 ② 02 나, 우리 03 ② 04 ④ 05 ③

01 이 시에서는 간절한 어조를 사용하여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태도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답 풀이 ①, ④ 이 시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철학적 사조를 바탕으로, 존재의 본질 구현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꽃’이라는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되고 싶다’를 반복하여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인식의 주체를 ‘나’에서 ‘우리’로 확대하고 존재에 대한 의미를 심화함으로써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이 시의 1연에서 ‘나’에게 이름을 불리기 전의 ‘그’는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2연에서 ‘나’가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는 의미를 부여받는다. 3연에서는 ‘나’ 역시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며, 4연에서는 ‘우리’, 즉 ‘나’와 ‘그’ 모두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이 드러난다.

03 이 시의 화자는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소망은 ‘무엇’,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등의 표현에 담겨 있다.

○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에게 이름을 붙여서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존재와 본질을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는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 즉 존재의 본질과 속성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에서 명명 행위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본질을 이해하고, 대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⑤ 이 시에서 ‘꽃’이라는 자연물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하는 시어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4 ‘빛깔과 향기’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 화자는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 즉 존재의 본질과 속성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불림으로써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05 이 시와 <보기>의 ‘나’는 모두 인식의 주체이다. 이 시의 ‘나’는 ‘그’를 인식하는 주체이며, <보기>의 ‘나’는 ‘너’를 인식하는 주체이다.

알아두기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이 작품은 「꽃」의 작가인 김춘수의 작품으로, 존재의 본질을 알지 못해 느끼는 안타까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념적, 주지적, 상징적	제재	꽃
주제	존재의 본질 인식에 대한 바람		
특징	• 존재론적 입장에서 사물의 본질을 추구함. • 철학적 문제를 구체적인 시어를 통해 표현함.		

작품 1

라디오같이~

본문 70~71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② 05 ⑤

01 이 시는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사랑이 되고 싶다.’, ‘라디오가 되고 싶다.’에서 ‘~이/가 되고 싶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이 시는 존재의 의미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데, 이는 ‘하나의 라디오’ → ‘전파’ →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로 구체화된다. 즉, ‘하나의 라디오’는 인식 이전의 의미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반면, ‘전파’는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를 통해 가볍고 일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의 의미를 드러낸다.

03 이 시는 현대인의 경박한 사랑을 비판하고 있을 뿐, 현대인의 물질 만능 주의나 이기적인 속성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04 이 시의 화자는 ‘단추’와 ‘버튼’을 누름으로써 타자와 소통하고,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단추’와 ‘버튼’ 모두 대상을 인식하게 하고 소통을 이끄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05 이 시와 〈보기〉는 모두 독백체의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나’와 ‘그’의 대화를 인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나’가 ‘단추’를 누름으로써 ‘그’를 인식하고, 〈보기〉에서는 ‘나’가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를 인식한다.

② 이 시는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의 경박한 사랑에 대한 풍자를, 〈보기〉는 진정한 관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와 〈보기〉는 모두 관계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시의 ‘전파’는 ‘나’가 인식한 존재로서, 의미 있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보기〉의 ‘꽃’, ‘무엇’, ‘눈짓’ 또한 ‘나’가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④ 이 시의 ‘하나의 라디오’와 〈보기〉의 ‘하나의 몸짓’은 모두 인식 이전의 의미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작품 2

파수꾼

본문 72~79쪽

01 ④ 02 ⑤ 03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04 ①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③ 14 ⑤ 15 ④ 16 ①
17 ④ 18 ② 19 ⑤ 20 ④ 21 ③ 22 ②
23 ①

01 이 글은 희곡으로, 무대에서 배우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직접 상연할 것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다. 희곡은 무대 상연의 문학으로서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간과 공간 및 등장인물의 수에 제한을 받는다.

02 촌장은 파수꾼 ‘나’를 내보내고 파수꾼 ‘다’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리가 텃에 걸려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 파수꾼 ‘나’는 이것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이리를 잡기 위해 자리를 뜬 것이다.

03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에서 동일한 배우가 해설자와 촌장을 연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록된 부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해당 배우는 운반인도 함께 연기한다. 해설자는 무대와 관객을 연결하고 촌장·운반인은 망루와 마을을 연결함으로써, 모두 매개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04 파수꾼 ‘다’와 촌장은 ‘이리 떼’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지만, 촌장은 진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05 ‘편지’는 ‘이리 떼’가 가공의 존재이며 그 정체는 ‘흰 구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촌장이 ‘편지’를 가리켜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편지’에 촌장의 어린 시절 추억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06 ‘말기’는 권력자가 민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언급하는 회유책,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곳에서 자라나는 특권과 부정한 대가, 독재 권력이 누리는 실리 등을 의미한다. 왜곡된 진실의 실체를 의미하는 소재는 ‘흰 구름’이다.

07 (라)에서 촌장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 촌장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척하며 파수꾼 ‘다’를 기만하고 있다.

08 촌장은 이리 떼라는 가공의 존재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들을 단결하게 하고 마을의 질서를 만들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ㄱ). 또한 진실이 알려지면 살인이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파수꾼 ‘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ㄷ), 파수꾼들이 이리 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친 것이 헛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ㄹ).

09 ‘망루’는 권력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파수꾼 '다'는 '망루'에서 흰 구름을 보고, 이리 떼가 가공의 존재이며 그 실체는 흰 구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③ '망루'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명분일 뿐이며, 실상은 권력자가 민중에게 공포심을 주고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⑤ '망루'에서 촌장과 파수꾼 '다'의 갈등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촌장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10 ㉠에서 파수꾼 '다'는 실재하지 않는 이리 떼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1 ㉡의 허사(虛事)는 '헛일, 보람을 얻지 못하고 쓸데없이 한 노력'을 뜻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을 의미하는 단어는 동음이의어인 '허사(虛辭)'이다.

12 해당 부분에서 촌장은 혼잣말을 하듯이 중얼거리며,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한 망설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에는 '혼잣말처럼'이 가장 적절하다.

13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가 아프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수꾼 '나'에게 파수꾼 '다'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라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바)에서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라는 지시문을 통해 파수꾼 '다'가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사)에서 파수꾼 '나'는 이리를 잡지 못해 그 꺾질을 촌장에게 바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있다.
- ④ (마)에서 촌장이 자신이 살인당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난폭하게'라는 지시문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거칠고 사나운 어조는 적절하다.
- ⑤ (마)에서 '은밀한 목소리로'라는 지시문이 있으므로 귀엣말을 하는 연기는 적절하다.

14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 '다'에게 이리 떼에 관한 진실을 확인받기 위해 망루로 찾아왔다(ㄷ). 마을 사람들은 우매한 민중을 상징하며, 이들은 이리 떼가 존재한다는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온 인물들이다(ㄷ).

15 파수꾼 '다'는 ㉠에서 이리 떼에 관한 진실을 오늘 밝히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자는 촌장의 회유에 결국 넘어가고 만다.

16 촌장은 시간을 벌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파수꾼 '다'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17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병'은 이처럼 어린 파수꾼 '다'가 지니고 있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뜻한다.

18 이 글은 희곡이다.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중 장면을 그대로 보여 주기 어렵다. 그래서 ㉢에서 관객을 등장인물로 끌어들이므로써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은 희곡이 무대 상연의 문학이라는 점과 가장 관련이 있다.

19 이 글은 촌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이리 떼의 공격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보기>는 양치기 소년이 재미를 위해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한다.

20 파수꾼 '다'는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약점이 되어, 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는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을 의미하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 잘 어울린다.

- 오답 풀이** ㉠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 비분강개(悲憤慷慨):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복받침을 이르는 말이다.
- ㉤ 흥진비래(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이다.

21 파수꾼 '나'는 양철 북을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알리는 일을 한다. 그는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하수인으로, 진실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없으며 무지한 인물이다.

22 촌장은 파수꾼 '다'가 망루에서 일생을 보내야 한다고 하며 마을에 오는 것을 막는다. 이는 파수꾼 '다'를 고립시켜서, 파수꾼 '다'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23 파수꾼 '다'가 길게 침묵하는 까닭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을 내일로 미루기로 촌장과 약속하고 그와의 갈등을 해소하였다. 따라서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저항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단원 평가

본문 80~83쪽

- 01 ㉠ 02 ㉡ 03 ㉠: 꽃, ㉡: 라디오, ㉢: 사랑 04 ㉡
05 ㉠ 06 ㉡ 07 ㉡ 08 팻말 09 ㉡ 10 ㉠
11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12 ㉠

01 (가)와 (나)는 '~이/가 되고 싶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ㄴ). 또한 (가)에서는 '꽃', (나)에서는 '라디오'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라는 관념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ㄷ).

- 오답 풀이** ㄱ. (가)와 (나)에서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존재의 의미와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ㄷ.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고고 싶을 때 고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 라디오가 되고 싶다.'에서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

02 (나)는 (가)의 형식적 특성을 모방하였으나 (가)와는 다른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존재의 본질 구현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나)는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경박한 사랑을 풍자하고 있다.

03 (가)의 '몸짓'은 인식 이전의 대상으로 의미 없는 존재를 의미하고, '꽃'은 인식 이후의 대상으로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며, '무엇'은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들은 각각 (나)의 '라디오', '전파', '사랑'에 대응된다.

04 (가)는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주체를 점층적으로 확대하고 존재에 대한 의미를 심화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즉 1연에서 인식의 주체가 '나'였던 것이 3연에서 '그'로, 다시 4연에서 '우리'로 확대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4연에서 시상이 전환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보기>에서는 예술과 문학을 물질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오늘날의 황금만능 시대를 비판한다. 지식인들은 물질적 가치로 평가당하고 있을 뿐, 이들이 예술과 문학을 물질적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알아두기 오규원, 「프란츠 카프카」

이 작품은 세계적인 작가와 인문학자의 이름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메뉴판의 형식을 빌려 나열한 시이다. 예술과 문학을 물질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오늘날의 황금만능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어적, 풍자적, 냉소적
제재	메뉴판
주제	물질 만능의 사회 풍조에 대한 풍자
특징	- 메뉴판 형식을 차용하여 정신적 가치의 상품화를 표현함. - 자조적인 어조와 반어적 표현을 통해 물질 만능의 현실을 비판함.

06 이 글의 등장인물들은 촌장, 파수꾼 '가', 파수꾼 '나', 파수꾼 '다'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운반인은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보낸 편지를 몰래 열어 보고, 이리 떼의 실체가 흰 구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08 '뺏말'은 거짓 명분, 명분 뒤의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을 가리키며, '뺏말' 밑에 가득한 '딸기'는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곳에서 자라나는 특권과 부정한 대가 등을 의미한다.

09 촌장은 진실이 밝혀질 경우 자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정하여 파수꾼 '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가정일 뿐이므로, 촌장이 자신을 살해하러 오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이 글에서 촌장은 파수꾼 '다'를 회유하여 자신의 거짓말을 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촌장이 거짓말로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잃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파수꾼 '다'가 촌장의 계략에 빠지면서 이리 떼의 진실은 영원히 은폐되고 촌장은 거짓을 이용하여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파수꾼 '다'는 촌장에 의해 망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거친 바람 소리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과 파수꾼 '다'의 좌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12 해당 장면에서 촌장은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하고 있다. ㉠은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촌장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② 파수꾼 '다'는 거짓말을 하기로 촌장과 약속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양심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③ 촌장은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라며 진실인 척 거짓된 '진상'을 밝히고 있다.

④ 촌장은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퍼뜨린 운반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어감을 갖는 '수다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⑤ 파수꾼 '다'는 결국 권력에 순응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게 되었으므로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평생 마을에 오지 못하고 망루에서 살아야 하므로 고립감을 느낄 것이다.

(4)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

확인 문제

본문 85쪽

01 ⑤ 02 (1) 언어 (2) 매체 03 (1) ○ (2) × (3) ○

작품 1

남작남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본문 86~87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5 ④ 06 ②

01 이 시는 1연에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한 박수근의 그림을 제시하고, 2연에서 그림 속 대상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때 화자의 시선은 그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천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2행과 8행에서 '한 며칠 놀렀다가'를, 2연의 1~3행에서 '~도 없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1연에서 '하나님 보시기 어땠습니까?', 2연에서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납작납작’, ‘드문드문’, ‘서성서성’, ‘펼렁’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작품 속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바라본다’, ‘물어본다’ 등과 같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더하고 있다.

02 작가가 박수근의 화법에 주목한 것은 입체적인 대상을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그의 화법이 삶의 고통에 짓눌리고 세파에 흔들리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과 연결되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이 시를 통해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03 이 시는 입체적인 세상을 평면적으로 표현한 박수근 그림의 화법을 통해 세파에 짓눌린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현실을 읽어 내고,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ㄱ, ㄷ, ㄹ은 납작하게 눌린 것처럼 보이는 박수근 그림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04 ㉠과 ㉡은 ‘하나님’을 청자로 삼아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가난한 이들이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올바르게 아니라는 판단을 독자 스스로 내리게 하고 있다. 이때 화자는 ㉠과 ㉡ 모두에서 ‘하나님’에게 세파에 짓눌린 서민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05 ㉣는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각박한 서민들의 삶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시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제시하기보다는 1연에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한 그림을 제시하고, 2연에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를 통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 시의 화자는 박수근의 그림 속에서 평면적으로 표현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중압감과 고단함을 읽어 내고,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는 <보기>를 보고 납작하게 표현된 인물들의 모습이 고단해 보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작품 2

메밀꽃 필 무렵

본문 88~95쪽

01 ③

02 ③

03 끝없이 펼쳐진 메밀밭의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04 ⑤

05 ⑤

06 ①

07 ③

08 ④

09 ④

10 ④

11 ②

12 ②

13 ③

14 ⑤

15 ④

16 개울

17 ④

18 ④

19 왼손

20 ③

21 ④

22 ③

23 ③

0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창작된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영상 촬영 후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면의 전환이 비

교적 자유롭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드러내며, 희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 관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극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관객을 앞에 두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희곡의 특징에 해당한다.

02 (나)에서 조 선달이 “걸음도 빠르고 힘도 센 녀석이 충주덕에서 자고 내일 동이 틀 무렵에 밭을 놔도 될 것을…….”이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것은 동이가 부지런하고 힘이 세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허 생원에게 따귀를 맞은 동이가 복수하기 위해 쫓아온 것은 아닐지 염려한 것이다. 따라서 조 선달이 동이와 동행하기를 바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에서 허 생원과 조 선달, 동이가 모두 장돌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앞부분 줄거리’에서 허 생원과 조 선달이 짐을 싸서 대화 장소로 떠나고, 동이가 그 뒤를 따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앞부분 줄거리’와 (나)의 허 생원의 말을 통해 허 생원이 충주집에서 동이가 충주덕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 혼을 내며 따귀를 때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허 생원과 조 선달은 동이가 자신들을 해코지하려고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다)에서 동이가 신발을 벗어 돌을 털어 내고, “여기는 뭐 어차피 다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뭘?”이라고 한 말을 듣고 자신들이 착각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03 (가)는 넓은 메밀밭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을 허 생원과 백근이, 조 선달이 지나고 있고,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이가 나귀를 데리고 따라오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촬영할 때 카메라를 수직으로 위를 향하여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틸트업’을 활용한다면 메밀밭을 더 넓게 보이게 함으로써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4 ㉡은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으로, 동이와 거리를 두고 걸으려는 허 생원과 조 선달의 행동이 지속된 채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 주기 위해 활용되었다.

05 허 생원은 객줏집에서 어린 장돌림 동이가 충주덕과 농탕치는 것을 보자 혼을 내며 따귀를 때렸다. 이 때문에 허 생원은 동이가 이때의 복수를 하기 위해 자기들을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동이를 신경 쓰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의 시점에서 허 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에서 허 생원이 숨차 하며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동이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이동했기 때문이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동이와 동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니다.
- ③, ④ 해당 내용은 주어진 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06 동이는 허 생원에게 따귀를 맞았음에도 허 생원의 나귀가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허 생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이의 착한 마음씨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 허 생원이 동이를 경계하며 빠르게 걷는 것으로 보아 허 생원이 동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이와 가까워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7 (라)의 시간적 배경은 '달 밝은 밤'으로, 허 생원은 조 선달이 달 밝은 밤이면 하는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하자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처럼 '달 밝은 밤'은 허 생원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과거 성찰의 계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조 선달의 "이렇게 달 밝은 밤이면 하는 이야기 있잖아."라는 말을 통해 시간적 배경이 '달 밝은 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허 생원은 '달 밝은 밤'을 통해 이십 년 전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달 밝은 밤'이라는 배경이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달 밝은 밤'이라는 배경은 애상적 정서를 자극하며 시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⑤ '달 밝은 밤'은 이십 년 전 성 서방네 처녀와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듦서 서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08 (라)는 시나리오이고, <보기>는 소설이다. 소설은 서술과 묘사를 통해 배경을 제시하는 데 비해, 시나리오는 영상을 통해 배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알아두기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갈래	단편 소설, 순수 소설		
성격	서정적, 낭만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장돌림의 삶과 애환		
주제	떠돌이 삶의 애환과 육친의 정(情)		
특징	- 세련된 언어와 서정적 분위기 속에서 낭만적인 정서를 표출함. - 방언을 통해 토속적 분위기를 조성함. - 암시와 여운을 주는 결말의 방식(열린 결말)을 취함.		

09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를 찾아 장을 돌아다니던 중, 성 서방네 처녀와 닮은 여인이 임신하여 배가 불러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다. 따라서 허 생원이 임신한 성 서방네 처녀를 직접 보도록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이십 년 전, 젊은 허 생원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허 생원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젊은 배우로 섭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허 생원은 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레방앗간에 갔던 것이므로 땀을 흘리는 장면을 넣으면 이러한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③ 허 생원은 물레방앗간에서 울고 있던 성 서방네 처녀에게 복조리를 만들어 주며 위로했기에 적절한 연출이다.
 ⑤ 성 서방네 처녀는 허 생원과 하룻밤의 인연을 맺은 후 온 가족이 아반도주를 하여 종적을 감추고,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를 찾아 장을 돌아다니므로 적절한 연출이다.

10 ㉠은 허 생원이 이십 년 전 봉평에서 성 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은 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허 생원은 그때 있었던 성 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을 잊을 수 없기에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달밤이 되면 이십 년 전에 인연을 맺었던 성 서방네 처녀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 ② 추억의 대상은 조 선달이 아닌 성 서방네 처녀이다.
 ③ ㉠과 허 생원이 장돌림이 되기 전에 가졌던 꿈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꿈이 무엇이었던지도 제시되지 않는다.
 ⑤ 이해하기 위해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추억이기에 계속 떠오르는 것이다.

11 "그날도 어지간히 더웠지."라는 허 생원의 내레이션을 통해 성 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은 과거의 사건이 시작되며, 달 밝은 밤인 현재 장면에서 피약벌이 비추는 낮인 과거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12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조 선달이 허 생원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위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조 선달이 허 생원에게 해 주었을 말로는 언젠가는 성 서방네 처녀를 꼭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13 (아)에서는 허 생원과 동이의 대화를 통해 동이의 과거와 동이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허 생원은 동이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고, 동이의 친아버지를 지푸라기로 뿔 잘 만들었다고 해서 '초 서방'이라고 불렀다는 말을 듣고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아)에는 허 생원과 조 선달의 대화, 허 생원과 동이의 대화는 제시되지만 독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인물들이 강을 건너는 과정만 드러나기에 장면이 빠르게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동이가 자기 부모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으나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동이 부모의 과거는 동이가 허 생원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아)에서 인물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보기>는 만화로, 만화 매체는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각 장면은 칸으로 구분된다. 또한, 장면 속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배경 등은 그림으로 표현되고, 인물의 대사나 생각, 해설 등은 글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해설 역시 만화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보기>에도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해설 없이 대사와 그림만으로 내용을 전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5 허 생원은 동이에게 동이의 어머니 고향이 자신이 성 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었던 봉평이라는 것(ㄴ), 동이의 친아버지가 지푸라기로 뿔 잘 만들었다고 해서 '초 서방'이라고 불리는 것(ㄹ) 등을 듣고 자신과 동이가 부자 관계일 수 있다고 짐작하게 된다.

16 허 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울에서 발을 헛디디게 되고, 이를 본 동이가 허 생원을 업고 개울을 건너게 된다. 이때 개울은 신체적 교감으로 허 생원과 동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허 생원이 동이에게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공간적 배경의 역할을 한다.

17 허 생원은 동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동이 모친의 고향이 봉평이고, 모친이 생부를 '초 서방'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허 생원은 동이 모친이 성 서방네 처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당황한 것이다.

18 허 생원은 자신과 처지가 유사한 백근이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친밀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혈육이 없어 그 대신 나귀 새끼를 아꼈는데, 동이가 자신의 친자식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귀 새끼는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동이는 제천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자는 허 생원의 제안을 수락하며 가는 김에 어머니도 뵙겠다고 하였다.
- ② 허 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하여 물에 빠졌다. 조 선달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허 생원에게 물에 빠진 이유를 물었고, 허 생원은 나귀 생각을 하다가 빠졌다고 답하며 진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 ③ 허 생원은 자신과 처지가 유사한 백근이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백근이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피마에게서 새끼를 얻자 자신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조 선달의 말을 통해 허 생원이 백근이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허 생원이 “내일 대화 장 보고는 제천으로 가세.”라고 한 말과 동이가 허 생원의 동행 제안을 수락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 조 선달이 “동이도 자네처럼 왼손잡이인가 보네.”라고 말한 부분에서 동이와 허 생원은 모두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허 생원과 동이가 부자 관계임을 암시하는 장치로, 왼손잡이가 과학적으로 유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학 작품이기에 독자들은 이런 허구적 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

20 허 생원은 가정을 이루어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백근이와 함께 반평생을 떠돌아다녔으며, 백근이는 외모나 행동의 양상까지도 허 생원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백근이는 허 생원의 동반자이자 허 생원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기에 허 생원은 백근이에게 각별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다. ㉠은 표면적으로는 물에 빠진 허 생원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도 나귀처럼 자식을 얻었는지 모른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고려할 때 ㉠은 나귀를 자신과 동일시한 허 생원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 허 생원은 동이의 어머니가 성 서방네 처녀이고,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 허 생원이 제천에 가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이의 어머니를 만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허 생원은 혈육이 없어서 그 대신 나귀 새끼를 아꼈는데, 동이가 친자식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 같이 말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허 생원의 기대감과 설렘, 혈육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기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에서는 ‘달빛이 기울어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물인 달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ㄷ), 세 사람이 달빛이 비추는 길을 걷어가는 장면을 통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ㄹ). 또한 허 생원과 동이가 부자 관계임을 암시적으로만 드러낼 뿐, 열린 결말 형태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ㄴ).

23 허 생원은 이십 년 전 봉평에서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일과 동이의 말을 통해 동이가 자신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이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이가 허 생원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나귀는 허 생원과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나귀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피마에게서 새끼를 얻었다는 것은 허 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일로 자식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앞서 조 선달이 “동이도 자네처럼 왼손잡이인가 보네.”라고 한 말과 ㉠을 통해 허 생원과 동이, 동이의 생부는 모두 왼손잡이임을 알 수 있다.
- ④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의 재회를 기대하며, 떠돌이 삶을 접고 가족을 만나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와 같이 돌려 표현하였다.
- ⑤ 밤 벌판에 울리는 방울 소리를 통해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 허 생원의 들뜨고 설렌 심리를 느낄 수 있다.

단원 평가

본문 96~99쪽

- 01 ② 02 ⑤ 03 ② 04 하나님 보시기 어떨습니까? / 하
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05 ③ 06 ⑤ 07 ③ 08 ①
09 이 글은 서술자가 없어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
으로 드러내는 반면, <보기>는 서술자가 있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10 ⑤ 11 ③ 12 ⑤ 13 나귀
14 ⑤ 15 ①

01 (가)는 박수근의 화법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한 작품으로 미
술이라는 인접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나)는 실학 이념
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철학, 즉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있
나, (나)에는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가)는 각박한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으며, (나)는 엄 행수를 ‘예덕선
생’이라고 부르며 존경과 예찬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가)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으나, (나)는 엄
행수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 뿐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은 드러
나지 않는다.
- ⑤ (가)는 화가 박수근의 그림에 나타난 표현 기법의 특징을 시로 변용하여
창작하였으나, (나)는 예술 작품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학
이념을 담아 창작한 것이다.

02 (가)는 고달픈 서민의 삶에 대해 절대자에게 항변하는 어조
를 사용하고 있을 뿐, 진리를 깨우치길 바라는 화자의 바람은 드
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③ ‘하나님 보시기 어떨습니까?’,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
까?’와 같이 하나님을 청자로 설정하여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
민’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바라본다’, ‘물어본다’ 등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
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쭉그린 아낙네 둘’, ‘여편네와 아이들’ 등은 그림 속 인물들로, 시로 형상
화되고 있다.

03 (가)의 화자는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납작하게 뻗어 있는 인물들에게 주목하며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향변하는 것이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1연에서는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2연에서는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라는 설의적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향변하고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05 선굴자는 똥을 저서 나르는 일을 하는 엄 행수라는 인물을 ‘예덕선생’이라 높이 칭하면서 엄 행수를 존경하고 예찬하고 있다. 이는 비록 더럽고 미천한 일을 하지만 의로운 삶을 사는 엄 행수와 같은 서민들의 삶에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것이다.

알아두기 박지원, 「예덕선생전」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문 소설이다. 똥을 저서 나르는 일을 하는 ‘엄 행수’라는 인물을 ‘예덕선생’이라 높이 칭하며, 무위도식하면서 허욕에 찬 양반들의 생활을 비판하였다.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교훈적		
배경	조선 후기, 한양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천민 계층의 ‘엄 행수’		
주제	바람직한 교우의 도(道)와 ‘엄 행수’의 무실역행하는 삶		
특징	- 현실 비판과 풍자를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함. -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평등사상이 담겨 있음.		

06 (나)에서 선굴자의 제자인 자목이 선굴자가 사대부가 아닌 미천한 엄 행수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의 뜻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선굴자가 자목과 엄 행수의 삶을 대조하며 자목을 꾸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굴자는 자목의 불만에 대해 엄 행수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며 하층민인 엄 행수를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선굴자는 엄 행수가 비록 굶은일을 하는 하층민이지만, 의롭고 지조가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도 늘 떳떳한 모습을 보이는 그의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② (나)의 작가는 이용후생을 내세우던 실학자 박지원이다. 이용후생 학파는 봉건적 신분 질서인 사농공상에 반대하며, 개인의 능력에 따른 신분제 개혁을 내세웠다. 작가는 이러한 사상을 「예덕선생전」에 반영하여, 하층민인 엄 행수를 주요 인물로 등장시키고, 그의 성품을 예찬하였다.

③ 선굴자는 엄 행수의 무실역행하는 삶을 예찬하고, “선비가 궁한 생활이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뜻을 얻어 출세하매 온몸에 표가 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선비에게 요구되는 중용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

④ 선굴자는 하층민인 엄 행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은 엄 행수에 대해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는 칭호를 바쳤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신분에 연연해하지 않는 바람직한 교우의 도(道)를 확인할 수 있다.

07 ㉔은 똥을 저서 나르는 일을 하는 엄 행수에 대한 통념을 제시한 것으로, 선굴자는 엄 행수가 더럽고 미천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며 엄 행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08 이 글은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는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필름에 담으므로 등장인물 수의 제한이 크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비교적 적다. 또한 촬영을 전제로 하며 특수한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되고, 적절한 상영 시간을 고려하여 내용이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막과 장을 구성단위로 삼는 것은 희곡의 특징으로, 시나리오는 장면(scene)을 구성단위로 삼는다.

09 이 글은 시나리오이고, 〈보기〉는 소설이다. 소설과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술자의 존재 유무에 있다. 소설은 서술자가 사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하여 인물의 심리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나리오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게 된다.

10 ㉔을 통해 허 생원이 달 밝은 밤이면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허 생원에게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 보라고 말을 꺼낸 사람은 조 선달이며, 조 선달은 ㉔ 뒤에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서운해서 아침에 동트기가 섭섭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조 선달은 허 생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㉔는 작품의 분위기를 시적이고 낭만적으로 연출하고 허 생원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허 생원이 이십 년 전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2 허 생원은 동이의 모친의 고향이 봉평이며, 모친이 동이의 생부를 초 서방이라고 불렀다는 말을 듣자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하여 물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물에 빠진 이유를 묻는 조 선달에게는 나귀 생각을 하느라 물에 빠졌다고 답하였으며, 조 선달이 허 생원이 물에 빠진 진짜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13 허 생원과 나귀 백근이는 외양과 행동이 유사하고, 허 생원은 나귀를 자신과 동일시하기에 둘은 동반자적인 관계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에서 나귀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피마에게서 새끼를 얻었다는 것은 허 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에게서 동이를 얻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4 허 생원은 동이 모친의 고향이 봉평이고, 동이 모친이 동이의 생부를 초 서방이라고 불렀다는 말을 듣자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동이 모친이 있는 제천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동이에게 동행을 제안하는데, 이때 동이는 가는 길에 어머니도 뵈겠다며 허 생원의 제안을 수락한다. 그러나 동이는 허 생원과 성 서방네 처녀와의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허 생원과 어머니를 만나게 해 주려는 의도도 드러나지 않기에 ㉔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5 ㉔는 허 생원과 동이가 부자(父子) 관계임을 암시하는 소재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문학 작품이기에 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허구적 장치이다. 독자는 허 생원과 동이가 모두 원손잡이라는 설정을 통해 두 사람이 부자(父子)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성 서방네 처녀가 원손잡이라는 설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동이 대신 동이의 모친을 원손잡이라고 설정했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3. 한국 문학의 성격



확인 문제

본문 102~104쪽

- 01 한국인, 한국어 02 ③ 03 ⑤ 04 (1) ○ (2) ×
05 ④ 06 ① 07 보편성 08 ④ 09 ③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작품



정음사

본문 105쪽

- 01 ⑤ 02 돌(달) 03 ① 04 ⑤

01 이 시가는 ‘달’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염려하며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2 이 시가의 화자인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돌(달)’에게 의탁하여 기원하고 있다. 이때 ‘달’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자, 남편을 향한 여인의 말을 대신 들어 주는 존재이다.

03 화자는 행상인의 아내로, 행상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걱정하고 있다. 화자는 달이 높이 돌아 남편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기를 바라며, 남편이 위험한 곳에 발을 디디거나 달이 어두워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화자의 모습은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하는 ‘노심초사(勞心焦思)’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④ 와신상담(臥薪嘗膽): 불편한 삶에 몸을 낮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으로써 이르는 말이다.

⑤ 자포자기(自暴自棄):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04 ‘드디올세라’와 ‘점그를세라(㉠)’의 ‘-르세라’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드디올세라’는 ‘디달까 두려워라’로, ‘점그를세라’는 ‘저물까 두려워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미를 사용하여 남편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머리곰’의 ‘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머리곰’은 ‘멀리멀리’로 풀이된다.

② ‘저재’는 ‘시장에’를 뜻하는 시어로, 화자의 남편이 행상인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③ ‘즌 디’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상징하는 시어로, ‘돌’과 대립적인 의미로 쓰였다.

④ ‘노코시라’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놓아 버리십시오’로 풀이된다.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작품



봉산 탈춤

본문 106~111쪽

- 01 ② 02 말뚝이의 변명 03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04 ②
05 ④ 06 ① 07 춤 08 ② 09 ② 10 ②
11 ⑤ 12 전령 13 ⑤ 14 ③

01 이 글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으로, 각 과장이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각 과장이 긴밀한 인과 관계에 의한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다가 양반이 호통을 치면 변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복종하는 척한다. 양반들은 이러한 말뚝이의 복종 속에 숨겨진 조롱을 간파하지 못하고 안심한다. 이는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

03 (나)에서 말뚝이는 ‘개잘량’과 ‘개다리소반’이라는 보잘것없는 것에 비유하여 양반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04 ㉠과 ㉡은 말뚝이가 각각 관객과 악공에게 말을 거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으며,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는 민속극의 특징을 알 수 있다.

05 말뚝이는 마부로,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또한 길으로는 양반에게 순종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양반의 무능과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양반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설명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말뚝이가 양반들을 모시고 다니며 그들의 새처를 알아보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양반들과 말뚝이가 주종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찬밥 국 말어 일조식’하는 말뚝이의 모습에서 서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③ 말뚝이의 변명 속에 담긴 조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양반들이 춤을 추는 모습에서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반 계층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⑤ (마)와 (사)는 앞의 재담과 달리, 생원의 말(“쉬어.”)을 통해 새로운 재담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인물의 등장 순서에 변화를 주어, 관객이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06 말뚝이는 겉으로는 양반에게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한.’을 뜻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말한다.

③ 허장성세(虛張聲勢):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말한다.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말한다.

⑤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말한다.

07 이 글에서 ‘춤’은 말뚝이와 양반들의 갈등을 일단락 지어, 재담의 내용을 구분하고 흥취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08 말뚝이는 ㉠과 같이 격식을 갖추지 않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양반들에 대한 반항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9 ㉡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 장면 전환이 자유로운 민속극의 특징을 보여 준다. ‘새치 방’이라는 실제 무대 장치 없이, 등장인물들의 동작만으로 장면이 자유롭게 전환되고 있다.

10 양반들은 시조를 읊음으로써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고자 하는데, 말뚝이는 이에 대한 못마땅함의 표현으로 민요인 「성주풀이」를 부르고 있다. 이는 양반들의 유식함이라는 것이 말뚝이가 부르는 민요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롱과 비판의 의도가 담겨 있다.

11 조선 후기에 실제로 양반의 신분을 돈으로 사고파는 일이 암암리에 행해졌으나, 이 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12 힘세고 날랜 취발이를 ‘전령’으로 쉽게 잡아들이는 것을 통해 당시에 양반의 권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13 ㉢에서 양반은 말뚝이에게 잡아 온 취발이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박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속어를 사용해서 취발이를 함부로 대하는 양반들의 횡포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14 이 글에서는 과장과 언어유희 등을 통해 양반들을 회화화하고 조롱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혼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어수룩한 ‘나’와 교활한 장인 사이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림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알아두기 김유정, 「봄·봄」

이 작품은 데릴사위인 ‘나’와 장인이 혼인 문제로 겪는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성격	해학적, 향토적
제재	‘나’와 점순이의 성례 문제		
주제	데릴사위인 ‘나’와 장인의 성례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산골 남녀의 순수한 사랑		
특징	-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냄. -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하여 극적 긴장감과 해학성을 높임.		

(3)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본문 112~115쪽

- 01** ⑤ **02** 여염 처자 **03** ④ **04** 입신양명(立身揚名)
05 ④ **06**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07** ⑤
08 ④

01 (다)에서 이몽룡은 옛 성현도 같은 성(姓)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성춘향의 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양반 부녀자의 도리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성춘향은 퇴기 월매의 딸이다. 그러나 (가)에서 이몽룡의 심부름으로 자신을 데리러 온 방자에게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라고 말하며, 부름을 거부하고 있다.

② 춘향 어머니는 성춘향이 양반인 이몽룡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이자 이를 통해 신분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여, 성춘향에게 이몽룡을 만나고 오라고 말한다.

③ 성춘향은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할 정도로 당돌하지만, 이몽룡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단아하고 다소곳한 모습을 보인다.

④ 방자는 이몽룡의 하인으로, 이몽룡과 성춘향 사이에서 말을 전하며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02 성춘향에게 반한 이몽룡은 처음에는 거리낌 없이 방자를 시켜서 성춘향을 데려오려 한다. 그러나 성춘향의 거절을 듣고 난 후에는 성춘향에게 ‘여염 처자’라고 지칭하며 만남을 조심스럽게 다시 요청한다.

03 성춘향은 이몽룡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다만 모친의 뜻을 몰라 망설이고 있던 차에, 모친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오라고 하여 그제야 못 이기는 척하며 이몽룡을 만나러 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몽룡을 만나러 갔다는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성춘향의 말 중에서 ‘공명’은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을 의미한다. 즉 이몽룡이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고 충신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이몽룡이 입신양명(立身揚名), 즉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05 이 글에서 성춘향은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당돌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영웅적인 면모는 보여 주지 않는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은 다양한 근원 설화(암행어사 설화, 관탈 민녀 설화 등)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게 소설이다. 오랫동안 민간에서 구전되던 이야기가 판소리 사설이 되었다가 소설로 정착하였기 때문에, 내용과 표현이 다른 이본이 존재한다.

③ 이 글은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있다. 춘향의 집을 일러 주는 방자의 말에서 판소리의 운문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판소리게 소설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 외에 이면적 주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이 글의 경우 표면적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여성의 굳은 정절이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적 한계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부정한 관리에 대한 저항 의식을 다루고 있다.

06 성춘향의 말 중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를 통해 성춘향이 이몽룡과의 신분 차이를 인식하여 이몽룡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7 (라)에서 이몽룡은 성춘향과 혼인하기 위해 성춘향의 부모, 형제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몽룡의 질문에 성춘향이 답변하고 있다.
 ② 이몽룡은 성춘향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③ 옛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인물은 성춘향이며, 이몽룡은 ‘하늘이 정한 인연’, ‘혼인’ 등의 말을 반복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④ 이몽룡의 말에 해학적인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08 성춘향이 “세상인심 고약하니 그만 놓고 가야겠소.”라고 말한 이유는 남녀 간의 교제를 당당히 드러낼 수 없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었기 때문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본문 116~121쪽

01 ⑤

02 가문(집안)의 갈등(대립)

03 ③

04 ④

05 ④

06 ⑤

07 ①

08 녹수(綠水)

09 ④

10 ②

11 이별은 달콤한 슬픔

12 ③

01 이 글은 연극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이다. 희곡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02 줄리엣이 로미오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들켜서 죽을까 봐 걱정하는 내용을 통해 두 가문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은 세련된 대사를 통해 남녀 간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대사가 운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ㄱ), 다양한 시적 형식과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ㄷ).

04 로미오는 캐플렛 집에 몰래 들어와 줄리엣을 지켜보다가, 로미오에 대한 사랑 고백을 담은 줄리엣의 혼잣말을 듣게 된다. 즉, ㉠은 로미오에 대한 줄리엣의 사랑을 가리킨다.

05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랑을 확인한 후, 꿈일까 두려울 정도로 행복하다고 하였을 뿐, 줄리엣이 변심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줄리엣이 로미오의 사랑에 대한 맹세가 잠깐의 번덕일까 두려워하고 있다.

06 ㉡은 로미오가 줄리엣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행복감을 표현한 것이다. 줄리엣은 유모가 불러 잠시 안으로 들어갔을 뿐, 로미오를 초대하기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니다.

07 줄리엣은 로미오가 창밖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창문에 기대어 로미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다가 로미오가 자신의 사랑 고백을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힌다. 그리고 줄리엣은 로미오가 어둠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08 이 글에서 줄리엣은 로미오가 사랑을 ‘달’에 맹세하려 하자 달은 한 달 내내 그 모습을 바꾸므로 달처럼 로미오의 사랑이 변할까 두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달’은 가변성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도 ‘녹수’는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존재로 가변성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알아두기 황진이, 「청산은 내 뜻이오~」

이 작품은 떠나는 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황진이의 시조이다. ‘청산’과 ‘녹수’의 대비, 감정 이입을 통해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갈래	평시조	성격	애상적, 연정적
제재	청산, 녹수		
주제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특징	•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함. •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09 문학이 인간의 문제를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라는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은 보편성을 지니는 동시에, 각 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특수성도 지닌다. 문학의 보편성은 사랑과 이별, 죽음과 삶,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감사, 선과 악의 대립 등과 같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공감할 만한 내용에서 비롯되는데, 이 글에서는 사랑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는 주인공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로미오와 줄리엣은 작품 속에서 창작된 인물이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③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으므로, 청춘들의 방황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원수지간의 가문에 속한 사람일 뿐, 신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10 (사)에서 유모의 부름으로 인해 줄리엣은 로미오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유모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별을 재촉하는 방해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에서 “이 길로 내 영혼의 인도자인 신부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이 행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야지.”라는 로미오의 대사를 통해 신부님은 로미오가 의지하는 대상이자, 로미오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1 줄리엣의 말 중 ‘이별은 달콤한 슬픔’은 로미오와의 당장의 이별은 너무나 아쉬워 슬프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결혼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달콤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2 줄리엣은 떠나려는 로미오를 다시 불러 놓고, 그 이유를 잊었다고 말한다. 로미오는 줄리엣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불렀는지 잊음으로써 더 오랫동안 줄리엣과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기쁘고 반가웠을 것이다. 따라서 ㉠은 줄리엣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어 기쁜 마음과 줄리엣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드러내는 ③의 지시문이 어울린다.

- 01 ⑤ 02 한글, 한자, 훈민정음 03 ⑤ 04 ③ 05 ④
 06 ⑤ 07 ⑤ 08 ③ 09 ④, ⑤ 10 노새 원님 11 ④
 12 ⑤ 13 ④ 14 ① 15 ④ 16 ② 17 ④ 18 ④
 19 신분의 차이 20 ③ 21 ④ 22 ② 23 ④

01 (가)는 ‘둘’과 ‘즌 디’로 밝음과 어둠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비가 갠 뒤의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선명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이와 대조되는 화자의 처지와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가)는 ‘어귀야 어강도리 / 아요 다롱디리’라는 후렴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가)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로,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다.
 ③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는 전통적인 한시의 ‘가-승-전-결’의 형식에 따라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는 ‘가-서-결’의 3단 구성을 보인다.
 ④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가)는 행상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달에게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알아두기 정지상, 「송인」

이 작품은 고려 시대의 문인인 정지상의 한시로, 이별의 슬픔을 자연물에 대응시켜 표현하였다.

갈래	한시, 7언 절구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슬픔
특징	• 도치법과 과장법을 통해 이별의 한을 극대화함. • 아름다운 자연과, 이별로 인한 슬픔을 대조하여 슬픔을 강조함.		

02 (가)와 (나)는 모두 작가가 한국인이고, 작품의 내용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가)는 구비 전승되다가 조선 시대 때 한글로 기록된 국문 문학 작품이고, (나)는 한자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한문 문학 작품이므로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다.

03 (가)의 화자는 행상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⑤의 화자 역시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로, (가)에 나타난 화자의 처지와 유사하다.

- 오답 풀이** ① 이항의 「도산십이곡」 중 제곡으로, 아름다운 자연에 순응하며 순리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② 김상헌의 시조로, 고국을 떠나는 신하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③ 박효관의 시조로, 까마귀의 반포지효를 들어 효심을 표현한 작품이다.
 ④ 박인로의 시조로, 이별한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04 (가)에서 화자는 ‘둘’에게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빌고 있다. 따라서 ‘둘’은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의 존재(ㄱ)이자, 화자의 소망을 이루어 주는 기원의 대상(ㄴ)이다.

오답 풀이 ㄴ.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ㄷ. ‘둘’은 화자와 남편 사이를 이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화자의 남편은 살아 있는 사람이므로, 이승과 저승을 이어 주는 매개체로 볼 수 없다.

05 ㉠은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한 것이다. 싱그러운 자연의 모습은 이별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부각한다.

- 오답 풀이** ① ‘저재’는 ‘저자에’, ‘시장에’를 뜻하므로, 이를 통해 남편이 행상인임을 알 수 있다.
 ② ‘즌 디’는 밝음을 나타내는 ‘둘’과 상반되는 어둠을 나타내는 시어로, 어두운 곳, 위험한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한다.
 ③ ‘내 가는 디’는 ‘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내’를 ‘임’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행상 길을 의미하고, ‘내’를 ‘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남편을 마중 나가는 아내의 길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를 ‘임과 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을 의미한다.
 ⑤ (나)의 4구에서는 눈물 정도로 강물이 늘어날 리는 없지만 이별의 슬픔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과장법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06 이 글은 황해도 봉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던 가면극으로, 해학과 풍자를 통해 당시의 양반 사회를 비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극 가운데 하나이다. 민속극은 일반적인 연극과 달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민속극의 관객은 구경꾼의 위치를 넘어 극 전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07 ‘쉬이’는 재담의 시작을 알리고, 춤과 대사의 경계 역할을 하며,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춤’은 재담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며 장면을 구분하고, 인물 간의 갈등을 표면적, 일시적으로 해소하여 극의 신명을 높인다.

08 말뚝이는 양반들의 등장을 소개하거나 양반들의 새처를 묘사하며 한자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반들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며 양반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말뚝이가 한자 어구를 사용하여 신분 상승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가)는 말뚝이와 외형적 결합을 지닌 양반 삼 형제가 등장하는 부분으로, 등장인물을 관객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 소재인 ‘병거지’와 ‘채찍’을 통해 말뚝이가 마부임을 보여 주며, ‘창옷’과 ‘관’ 등을 통해 양반들의 신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입이 비뚤어진 도련님의 모습 등을 통해 양반들이 풍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10 <보기>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쓰이고 있다. (다)에서는 ‘노 생원님’을 말뚝이가 타고 다니는 ‘노새 원님’으로 표현함으로써 <보기>와 같이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다.

11 ㄴ에서 말뚝이는 화려한 양반 거처의 전형적인 형태 및 세간을 묘사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세워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양반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하고 양반들의 부도덕함을 비

판하고 있다.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도 축축 축여 놔습니다.”와 같은 마지막 말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말뚝이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ㄱ에서 전형적인 양반의 거처를 묘사한 것은 양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지 양반의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12 ㉔은 ‘쇠털 같은 담배’와 대응되는 표현으로,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양반의 물건을 비하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는 양반들의 가렴주구(苛歛誑求: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행태와 관련이 없다.

13 ㉓에 사용된 ‘놈’과 ‘없습디다’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으로, 양반들에 대한 반항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4 (가)에서는 말뚝이가 허위의식과 부패에 빠진 양반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며 한국 문학의 전통이자 특질인 풍자와 해학을 계승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성례를 시켜 달라는 ‘나’와 성례를 올려 주지 않으려는 장인이 갈등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림으로써 한국 문학의 전통이자 특질인 해학성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를 통해 한국 문학에서 풍자와 해학이 다양한 작품에 걸쳐 계승됨을 알 수 있다.

15 (가)의 취발이를 통해 당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의 도입 기였음을 알 수 있다. 취발이가 전령을 통해 양반에게 쉽게 붙잡혀 왔고 양반이 취발이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신흥 계층과 양반 계층의 대립이 치열했는지는 알 수 없다.

16 ‘나’를 충동질했던 점순이로 인해 ‘나’는 장인과 격렬하게 싸워 성례를 성사시키려 하지만, ‘나’가 장인을 공격하자 점순이는 장인을 편들며 ‘나’를 당황하게 한다. ㉔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가 충격을 받고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뜻하는 망연자실(茫然自失)이라는 한자 성어로 ‘나’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재앙,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말한다.

④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⑤ 와신상담(臥薪嘗膽):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려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7 (가)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가)는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고, (나)는 영국의 대표적인 희곡 작품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창작된 작품이지만 두 작품 모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18 줄리엣의 대사인 “당신은 누구요? 밤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남의 비밀을 엿들었으니.”를 통해 줄리엣은 로미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19 한국 문학의 특수성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며 형성된다. (가)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신분의 차이’를 초월한 남녀 간의 지순한 사랑과 유교적 정절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

20 (나)는 무대에서 배우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직접 상연할 것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인 희곡에 해당한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민속극의 특징으로, (나)에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21 ㉔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렸으므로 이름을 말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줄리엣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한탄조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줄리엣과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대사인 독백이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22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㉔에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한자 성어인 ‘일편단심(一片丹心)’이 적절하다. 그리고 뒤에 제시된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이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㉔에는 사랑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지내는 상황과 관련 있는 한자 성어인 ‘독수공방(獨守空房)’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학수고대(鶴首苦待):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을 말한다.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말한다.

④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말한다.

23 <보기 1>의 제2장은 한자어 없이 순수한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으며, 조선의 유구한 전통이 무궁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 또한 <보기 2>에서 나라의 제사나 잔치와 같은 공식 행사 때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불렀다고 하였으므로 그 향유 계층이 일부 귀족 계층에 국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서민들의 일상어와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알아두기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이 작품은 조선 세종 때,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이다. 또한 한글 창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국문 시가이다.

갈래	악장, 송축가, 서사시
성격	송축적, 예찬적, 서사적
제재	조선 왕조의 창업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
특징	•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임. • 각 장이 2절 4구체로 구성됨(단, 제1장과 제125장 등은 제외). • 주로 전절에서 중국의 사적을, 후절에서 육조의 사적을 배열함.

4. 한국 문학의 역사



(1) 상고 시대~고려 시대의 문학

확인 문제

본문 130~133쪽

- 01 ⑤ 02 (1) 설화 (2) 향찰 (3) 낙구 03 (1) ○ (2) ○
 (3) × 04 ① 05 (1) × (2) ○ (3) ○ (4) × 06 ②
 07 (1) 신흥 사대부 (2) 교술적 (3) 설화 08 (1) ㉠ (2) ㉡
 (3) ㉢ 09 ③ 10 (1) × (2) ○ (3) ○ 11 ④
 12 (1) ㉣ (2) ㉤ 13 소설

작품

1



주몽 신화

본문 134~137쪽

-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알,
 현실 07 ④ 08 ③ 09 ② 10 ⑤ 11 ③
 12 ②

01 이 글은 고구려의 건국 신화이다. 신화는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로 그려지며(ㄷ), 민족이나 국가 등의 범위 안에서 수용된다는 특성을 지닌다(ㄹ).

- 오답 풀이** ㄱ. 신화는 주로 초월적 존재를 주인공으로 삼으며,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른다. 따라서 이야기의 사실성보다 신성성이 더 강조된다.
 ㄴ. 신화는 일반적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주인공이 신성한 업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ㄹ. 신화는 이야기 속에 천지나 인간 등의 포괄적인 증거물이 등장한다. 바위나 나무 등의 개별적인 증거물이 등장하는 것은 전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금와가 유화가 낳은 알을 내다 버렸으나 짐승들은 이를 피하거나 보호해 주었다. 이를 통해 주몽이 신성한 존재임이 드러나지만, 주몽이 지닌 비범한 능력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03 금와의 장자인 대소가 주몽을 시기하여 금와에게 주몽을 없애야 한다고 아뢰었으나, 금와는 이를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04 <보기>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서는 주몽이 태어난 후 조력자를 만나 시련을 극복하거나 위업을 달성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라)의 이후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가)에서 천신과 수신의 후손인 주몽의 고귀한 혈통이 드러난다.
 ㉡ (나)에서 햇빛을 통해 잉태되고 알을 깨고 나온 주몽의 비정상적 출생이 드러난다.
 ㉢ (다)에서 활을 잘 쏘는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난다.

05 ㉣은 주몽의 비정상적 잉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몽이 하늘의 혈통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고구려인들에게 태양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금와의 행위는 밍기 힘든 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그것을 포악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비정상적 출생'에 해당하며, 주몽이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 ㉤ 햇빛은 태양 숭배 사상과 천신 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햇빛이 유화를 따라와 비쳤다는 것은 유화가 하늘의 혈통을 잉태할 것임을 암시한다.

06 ㉣에서 주몽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주몽이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07 주몽은 자신을 뒤쫓는 자들이 닥치기 전에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엄수를 무사히 건넜으며, 주몽이 자신을 뒤쫓는 자들을 무찌르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바)에서 주몽이 졸본주에 이르러 도움을 청하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하였는데, 이때의 나이가 12세였다고 하였다.
 ㉡, ㉤ (마)에서 주몽의 어머니가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주몽에게 알려 주었으며,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다고 하였다.
 ㉢ (바)에서 주몽의 본성은 해였으나, 천제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낳았다 하여 스스로 고(高)로써 성을 삼았다고 하였다.

08 (마)에서 주몽은 앞에는 엄수에 가로막히고 뒤에는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이르는 한자 성어인 '전화위복(轉禍爲福)'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9 주몽을 죽이려고 하는 ㉠과 주몽을 뒤쫓는 ㉡은 주몽의 적대자로, 주몽과 대립 관계이다. 반면 주몽에게 위험을 알려 주는 ㉢, 주몽과 함께 도망하는 ㉤, 주몽의 도망을 돕는 ㉥은 주몽의 조력자로, 주몽과 조력 관계이다.

10 ㉢에서 주몽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물을 향해 천신과 수신의 자손인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내세우며 자신이 위기 상황에 처하였음을 고하고 있다.

11 이 글은 천손 강림(天孫降臨), 난생(卵生), 기아(棄兒), 태양 숭배 등의 신화적 화소가 등장하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후대 영웅 서사 문학의 원형이 되었다는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

12 건국 신화는 특정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면서도, 그 인물의 건국 행위를 신성화하고 그를 신격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고구려 백성들에게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 주었을 것이고(ㄱ), 신성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ㄴ).

오답 풀이 ㄴ. 난생은 우리나라 건국 신화의 화소 중 하나로, 고대인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신화적 상징성을 드러낸다. 신화는 신성성이 강조된 이야기이기에 신화가 이성적 사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ㄷ.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로, 단군의 출생과 즉위 과정 및 홍익인간의 이념이 제시된 것은 「단군 신화」이다.

2

작품

제망매가

본문 138~139쪽

01 ②
02 ⑤
03 ④
04 이른 부르매
05 ②

06 ⑤

01 이 시가는 10구체 향가로,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재회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이의 죽음을 한 가지에서 난 앞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나,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내용상 누이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애처로움(1~4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5~8구), 인간적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9~10구)의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이승, 현재 공간, 이별의 공간을 의미하는 '이예'와 저승(극락세계), 미래 공간, 재회의 공간을 의미하는 '미타찰'의 대비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한 가지에서 난 앞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9~10구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무상함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2 이 시가는 '이른 부르', '뜨러덜 님', '흔든 가지'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고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이 시가는 민중을 교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이 시가를 쓴 인물은 승려인 월명사로, 미타찰에서 재회를 기다린다는 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③ 참요는 예언하는 노래로, 이 시가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드러낼 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성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 시가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03 <보기>는 향가를 표기한 향찰(鄕札)이라는 특수한 문자의 예이다. <보기>를 통해 향찰이라는 글자는 한자의 음(소리)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4 이 시가는 누이의 요절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누이의 이른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는 '이른 부르매(이른 바람에)'이다.

05 ㉠은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요절한 화자의 누이를 가리키고, ㉡은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것을 확신하는 화자를 가리킨다.

06 ㉢는 낙구의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로, 앞서 전개된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ㄷ). 즉,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삶의 고뇌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부분으로, 1~8구까지 이어져 오던 비극적 정서를 슬픔의 극복 의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ㄱ. ㉢는 감탄사로, 앞의 내용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ㄴ. 이 시가에서는 화자의 전환 없이 동일한 화자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

작품

동동

본문 140~143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②
06 ㉢: 몸.

㉢: 곶고리 새, ㉣: 외로운 처지(외로움)
07 ①
08 ③

09 ②
10 ②
11 저미연 부릇
12 ①

01 이 시가는 고려 시대에 창작된 고려 가요이다. 고려 시대에는 한문 문학이 발달하였고, 귀족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가 형식인 경기체가가 유행하였다. 또한 우리말 노래인 고려 가요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노래하였고, 패관 문학이 발달하고 가전이 활발히 창작되었으며, 중엽 이후 시조가 정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조선 후기의 문학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상고 시대의 문학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문학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조선 초기의 문학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가)는 이 시가의 서사로, 월령체로 구성된 나머지 연과 내용적, 형식적인 면에서 이질성을 보인다(ㄱ). 이를 통해 이 시가에는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 음악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ㄷ).

오답 풀이 ㄴ. (가)에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사물은 제시되지 않는다.

ㄴ. (가)는 임금의 송축을 기원하고 있을 뿐,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며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3 (나)에서는 임 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외로움이, (마)에서는 오지 않는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원망이 드러나고 있다.

04 (마)에서 화자는 '곶고리 새'와는 달리 오지 않는 입(녹사(錄事)님)을 그리워하며 원망하고 있다.

05 ㉠은 높이 켜져 있어 만인이 우러러보는 특성을 지녔기에 훌륭한 인품을 지닌 입을 비유한 것이고, ㉡은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기에 용모가 아름다운 입을 비유한 것이다. 또한 ㉢은 벼랑에 버려진 빗에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여, 입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화자의 신세를 드러낸 것이다.

06 1월령에서는 겨우내 얼었다가 정월이 되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나릿 물'과 외로운 마음을 녹여 줄 사람 없이 홀로 살아가는 '몸(㉓)'을 대조하였고, 4월령에서는 봄이 되자 잊지 않고 찾아온 '곳고리 새(㉔)'와 봄이 되어도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녹사(錄事)님(임)'을 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㉕)를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07 (아)의 3행에서 임과 함께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8 (타)의 화자는 홀로 누워 임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이와 화자의 처지가 유사한 것은 가을 밤 간절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리고 있는 ㉓이다.

○오답 풀이 ① 임의 죽음을 애도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다.

②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④ 죽음을 각오한 군은 지조와 절의를 노래하고 있다.

⑤ 선비의 높은 절개와 지조를 노래하고 있다.

09 (파)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임의 소반 위에 올려 둔 젓가락에 비유하고 있다. 젓가락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입에 문 것은 화자가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화자의 한탄이 드러난다.

10 ㉠은 이 시가의 후렴구로, 고려 가요에서 후렴구는 연을 구분하고 구조적 통일감을 주며(㉡), 리듬감을 형성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나. ㉠은 북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흥내 낸 의성어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에서 의성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11 (카)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저미연 ㅅㅅ'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즉 꺾인 나뭇가지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에 비유하여,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이다.

12 이 시가에는 월령에 따른 고려 시대의 풍속이 나타나 당대 평민들의 생활상과 풍부한 정서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01 이 글은 건국 신화로, 건국 신화는 새 국가의 성립 과정 및 그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신성한 존재로 그려진다. 비현실적인 내용도 주인공의 영웅성과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영웅적 인물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서사 구조로, 일반적으로 '고귀한 혈통 - 비정상적 출생 - 버려진 아이 - 비범한 능력 - 성장 후 시련 - 시련 극복 - 위업 성취'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한다. 주몽이 기골이 준수하고 활을 매우 잘 쏘는 것은 비범한 능력에 해당되며, 고귀한 혈통에 해당되는 내용은 주몽이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03 햇빛이 유화를 비추어 주몽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천손 강림을 의미하며,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태양 숭배 사상과 천신 숭배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4 물고기와 자라는 주몽 일행이 뒤쫓아 오던 기마병을 피해 암수를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외손자라는 주몽의 고귀한 혈통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나. 이 글에 주몽이 ㉡과 관련하여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 당시 강을 건너는 데 물고기와 자라를 널리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05 이 글은 당시 고구려 백성들에게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 주었을 것이고, 신성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

06 이 글은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보기>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알아두기 작자 미상, 「단군 신화」

이 작품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 내역을 밝히고 있다.

갈래	건국 신화
성격	서사적, 영웅적
제재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
주제	단일 민족의 역사성과 홍익인간의 이념
특징	• 천손 하강, 천부 지모의 화소를 지님. • 환인-환웅-단군에 이르는 삼대기(三代記) 구성이 나타남.

07 (가)와 (나)는 향가로, 향가는 자연 예찬, 이상 세계의 염원, 현실의 고뇌를 노래하는 등 신라인의 다양한 사상과 감정을 잘 드러내었다.

단원 평가

본문 144~147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해 주었을 것이다. 06 ① 07 ④ 08 ② 09 ② 10 ⑤ 11 ① 12 ④ 13 ⑤ 14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에 유입되면서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15 ⑤ 16 ③ 17 ③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후렴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연 구분 없이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중국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한 우리 고유의 시가 양식이다.

알아두기 득오, 「죽지랑가」

이 작품은 화랑이었던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추모의 정을 노래한 향가이다.

갈래	8구체 향가	성격	추모적, 예찬적, 서정적
제재	죽지랑의 인품		
주제	죽지랑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그에 대한 추모		
특징	• 화랑의 세계를 보여 주는 작품임. • 주술성이 없는 순수 서정시로,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이 극진함.		

08 (가)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재화를 소망하고 있고, (나)는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추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죽지랑이 작가의 가족인지는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10구체 향가이고, (나)는 8구체 향가이다. 8구체 향가는 4구체에서 10구체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인 형식이며, 10구체 향가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
 ③ (가)와 (나) 모두 이승에서는 대상과 헤어졌으나, 죽은 후 저승에서 대상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표기된 우리말 노래이다.
 ⑤ (가)는 마지막 2구의 첫머리를 '야야'로 시작하고, (나)는 마지막 2구의 첫머리를 '낭(郎)이여'로 시작하고 있다.

09 (가)는 '쁘러덜 님'에서 앞이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였다.

10 ㉔은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죽지랑이 살아 있던 때, 죽지랑과 함께한 세월을 의미한다.

11 향찰이 우리말을 적기 위해 한자를 변용하여 쓴 독창적 문자였다는 사실은 향가가 신라 시대의 우리말 노래, 즉 한국 문학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향가는 신라 시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를 잘 보여 주는 귀중한 문학 유산이자,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를 잘 보여 주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12 (가)~(바)와 (사)는 고려 가요로, 형식적 측면에서는 각 연에 각각 '아으 동동(動動)다리', '위 증줄가 대평성디(大平聖代)'와 같은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고(㉠), 몇 개의 연으로 나뉜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담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 오답 풀이** ㉡. (가)는 서사를 제외하면 12개의 연을 열두 달의 차례에 맞게 전개하며, 각 연에서 그 달의 자연 현상이나 세시 풍속을 화자의 정서와 함께 나열하고 있으나, (나)는 시상을 월령체로 전개하고 있지 않다.

알아두기 작자 미상, 「가시리」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을 간결한 형식과 직설적인 표현으로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서정적, 체념적, 희생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특징	• 간결하고 함축적인 시어로 애절한 사랑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함. • '위 증줄가 대평성디(大平聖代)'는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첨가된 것으로 보임.		

13 (가)~(바)와 (사)는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려 가요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들의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바)와 (사)에 비판적인 성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바)와 (사)에 지식인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건국 신화의 문학적 의의에 해당한다.
 ④ 고려 가요는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을 보여 준다.

14 (나)~(바)의 주된 정서는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과 슬픔, 임에 대한 그리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사인 (가)는 임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송축의 내용이어서 전체적인 내용과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궁중 음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본래 노래에는 없던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사)의 화자는 임을 붙잡고 싶었지만 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붙잡지 못하였으며, 가자마자 돌아오라며 임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지만 임이 자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내용은 (사)에 드러나지 않는다.

16 ㉠은 고려 가요의 후렴구로, 특정한 의미 없이 복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따라서 ㉠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려 했다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17 봄이 되자 잊지 않고 찾아온 ㉢는 봄이 되어도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임과 대조되는 소재이다. 이로써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고, 화자의 원망과 한탄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2) 조선 시대의 문학

확인 문제

본문 148~151쪽

- 01 ③ 02 ② 03 (1) × (2) ○ 04 사대부, 평민
 05 ⑤ 06 ② 07 ③ 08 ② 09 방각본 10 ③
 11 ④ 12 (1) ○ (2) ×



- 01 ④ 02 ④ 03 ① 04 ③ 05 ③ 06 ③
 07 ④ 08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09 ④ 10 ② 11 ①
 12 ② 13 ④ 14 ⑤ 15 ④ 16 ⑤ 17 ②

01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이야기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ㄴ). 산 사람인 이 서생과 죽은 사람인 최 여인의 애절한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ㄷ), 이 서생과 최 여인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있다(ㄹ).

- 오답 풀이** ㄱ. '송도'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옛 이름으로,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 서생이 송도의 국학에 다녔다는 것을 통해 이 글의 배경이 고려임을 알 수 있다.
 ㄷ. 이 글은 전기 소설로, 죽은 여인과의 사랑이라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02 (나)에서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죽었던 최 여인이, 이승으로 돌아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한 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이 서생과 최 여인의 혼인을 거절하지만,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다.
 ②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가 이를 반대한다.
 ③ 흥건적의 난으로 인해 최 여인은 물론 양가 부모도 모두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는다.
 ⑤ 부모님이 살던 옛집은 이미 병화에 타 사라진 상태였으며, 이 서생은 아내의 집에서 지난날을 회상한다.

03 이 서생은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며 최 여인과의 만남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최 여인'과의 만남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나)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에서 이 글의 제목인 '이생규장전(이 서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05 구어체는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를 의미하나, 이 글은 글에서 주로 쓰는 말투인 문어체로 서술되어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난 이 서생과 자수와 시문에 능하며 매우 아름다운 최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②, ④ 봉건적 질서나 전쟁 등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세계의 횡포)에 순응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라는 소설 갈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최 여인이 정절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것에서 유교적 사상이 드러나며, 환생한 최 여인이 삼세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이 서생과의 인연을 강조한 것은 불교적 사상과 관련이 있고, 최 여인이 환생하여 이 서생과 재회한 것은 도교적 사상과 관련이 있다.

06 이 글에서 이 서생과 최 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 내면서 죽음까지 초월하여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환생이라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비극적인 현실을 전기적(傳奇的)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전기적 요소가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이 서생은 최 여인의 환신과 재회한 뒤 즐겁고 행복한 마음에 스스로 외부 세계와 단절한 채 아내와 둘이서만 세월을 보냈다. 최 여인의 요구로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08 최 여인이 작별을 고하면서 이 서생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자신과 이 서생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최 여인을 환생시켜 잠시라도 이 서생을 만나 시름을 풀도록 허락했음을 알 수 있다.

09 최 여인은 저승에서의 삶의 결과로 이승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 죄를 짓지 않았으며 또 이승에 남아 있는 이 서생과의 연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잠시 머물 수 있었던 것이다.

10 세상일을 모두 잊고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 이 서생의 모습은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 또는 집에서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가지 않거나 사회의 일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두문불출(杜門不出)'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을 뜻하는 말이다.
 ③ 부화뇌동(附和雷同):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다.
 ④ 일촉즉발(一觸即發): 한 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⑤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사물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1 최 여인이 말한 '세 번의 가약'은 세 번의 만남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가약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인연을 맺고 혼인을 약속한 것, 두 번째 가약은 혼인한 것, 세 번째 가약은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한 후 다시 인연을 맺은 것이다.

12 (사)의 이 서생의 말을 통해 이 서생의 부모를 최 여인의 도움으로 장사 지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어디에 묻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바)의 첫 소절인 '도적 때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 몰죽 음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를 통해 최 여인은 '도적 때' 즉, 흥건적의 해 죽임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최 여인의 시인은 이 서생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아)를 통해 이 서생이 최 여인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병이 나서 두서너달 만에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⑤ (사)의 최 여인의 말을 통해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저승의 법에 위반되며,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이 서생에게까지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13 (바)의 마지막 부분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라는 구절을 보면 최 여인이 다시 환생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14 이 글은 중간에 (바)와 같은 시를 삽입하여 작품에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서사적인 사건 전개에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다.

15 ‘이 사실을 들은 ~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밖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경우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글은 비극적 결말로 끝을 맺는다.

② 이 글의 주인공(자아)은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는 운명(세계)과의 갈등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주인공이 현실의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아)가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서생의 모습을 당시 사대부 남성의 전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16 ㉠은 환생한 최 여인과 이승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이 서생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현실의 삶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이별해야 하는 운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7 ㉡은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게’를 의미하는 말이며, ‘좀 겹겹적이고 부끄럽게’는 ‘열없이’에 대한 설명이다.


2

시조 네 편

본문 158~161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④ 05 ④ 06 이화우,
추풍낙엽 07 ④ 08 ③ 09 하암 10 ⑤ 11 ③
12 ② 13 ①

01 (가)와 (나)는 모두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갖춘 평시조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작가는 사대부이고, (나)의 작가는 기녀이다.

③ (가)는 화자가 작품 속에 직접 등장하지 않으나, (나)는 중장의 ‘날(나를)’에서 화자가 직접 등장한다.

④ (가)와 (나)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는 죽음을 각오한 화자의 굳은 절의와 지조를 의지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으나, (나)는 이별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애상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02 (가)와 (나)는 모두 평시조로, 3·4조(ㄴ)와 4음보(ㄱ)의 운율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ㄷ. (가)와 (나)는 고려 가요처럼 후렴구의 반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ㄹ. (가)와 (나)는 비슷한 음운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지 않다.

03 (가)의 화자는 충신으로 일컬어지는 백이와 숙제를 닮았으므로 자신의 절개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백이와 숙제의 굳은 절개를 칭찬하고 있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은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는 고사의 내용과 대응되는 것으로, ‘수양 대군이 주는 녹을 받음’이 적절하다.

05 (나)는 임과의 이별, 그리움, 재회의 소망을 애상적이고 감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화우(봄)’, ‘추풍낙엽(가을)’과 같이 계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시어를 통해 임과 헤어진 날과 현재 사이의 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천 리’를 통해 자신과 임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이화우’는 비 오듯 떨어지는 배꽃, 또는 봄비를 뜻하고, ‘추풍낙엽’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뜻한다. 이 두 시어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를 심화한다.

07 (라)의 갈래는 사설시조로,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이 제한 없이 길며 종장도 길어진 시조이다. ④는 엽시조에 대한 설명이다.

08 (다)의 화자는 산의 바위 아래 떠집을 짓고 보리밥에 풋나물을 먹으며 노니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소박하게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② 화자는 속세의 부귀영화는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④ 화자는 사대부 계층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일 뿐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비웃는 속세의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은 이것이 분수에 맞다며 자족하고 있다.

09 ‘하암’은 향암(鄕巖), 즉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사리에 어두운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화자는 자연에 사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0 ‘삼공’은 삼정승,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세상의 권력을 뜻한다. 따라서 ‘삼공’은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의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11 제2수에서 화자는 보리밥과 풋나물을 먹으며 바위 끝 물가에서 놀고 있다. 화자는 다른 일은 부러워할 것이 없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삶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며 임금에게 감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라)에서는 ‘창 내고자(아) 창을 내고자(아) 이내 가슴에(ㄴ) 창 내고자(아)’와 같이 ‘a-a-b-a’의 문장 구조가 나타난다(ㄱ). 또한, 창 종류(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와 부속품(암돌겨귀, 수돌겨귀) 등 비슷한 음운의 구체적인 소재를 열거하고 있다(ㄷ).

13 ㉠은 말로는 풀리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노래라도 불러 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나타난, 신희의 시조이다. (라)와 ㉠은 모두 현실적 삶의 답답함과 애환을 드러낸다.

- 오답 풀이** ② 인생무상과 떠난 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황진이의 시조이다.
- ③ 산촌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선비의 고결한 인생관을 그린, 신희의 시조이다.
- ④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봄의 정취와 외로움을 노래한, 조현의 시조이다.
- ⑤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안빈낙도를 드러낸, 송순의 시조이다.

3

작품 3 속미인곡

본문 162~165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⑤	05 ①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빈 비(빈 배), 반백 청등		
11 ①	12 ②	13 ③	14 ③		

01 이 시가에서 중심 화자(을녀)는 시적 대상인 ‘님’과 함께 천상에서 머무르던 존재였으나, 현재는 혼자 인간계로 내려온 상황이다. 이는 ‘天塹上 白碧玉옥京경을 엇다하야 離니別별하고’를 통해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3(4)·4조의 4음보 율격을 지닌 양반 가사이다.
- ② 보조 화자인 갑녀(甲女)와 중심 화자인 을녀(乙女)의 대화체 형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임과 이별한 한 여인(을녀)의 애달픈 심정에 의탁하여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는 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한자 어구의 사용을 자제하고, 화자의 애틋한 심정을 소박하고 진솔한 우리말로 표현하여 가사 문학의 백미(白眉)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02 이 시가의 창작 시기가 조선 시대이고 작가가 사대부 남성임을 고려할 때, 자신의 목소리로 심경을 절절히 토로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가에서 여성을 화자로 설정한 이유는 임금에 대한 작가의 간절한 그리움과 애틋한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03 ‘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하는 부분에서 계절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항상 임금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③ 이 시가는 사대부 남성인 작가가 임금에 대한 충심과 그리움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토로하는 작품이다.
- ② 임과 이별한 화자의 상황은 벼슬에서 물러나 임금 곁에 가지 못하는 작가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④ ‘네로다 너기실시’는 화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작가가 조정에서 임금에게 신뢰를 받으며 일하던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04 반어법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인데, 이 시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05 [A]에는 임을 생각하는 화자의 걱정거리들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한자 성어로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의미의 ‘노심초사(勞心焦思)’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 ③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④ 와신상담(臥薪嘗膽):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티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뜻하는 말이다.

06 ㉠과 ㉡은 모두 작가의 분신으로서,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다. ㉠은 이 시가의 보조 화자이고 ㉡은 이 시가의 중심 화자이다. 따라서 ㉠은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돕는 기능적 역할을 하며, 극적인 결말을 짓게 한다. 반면 ㉡은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며,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한다.

07 ㉢의 ‘글란 싱각 마오’는 갑녀의 대사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이다. 앞에서 을녀가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고 있으므로, ㉢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8 꿈속에서 화자가 임을 만나는 장면은 가능하지만, 꿈속에서 그간의 사연을 하소연하려고 하다가 닭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되었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09 ‘미인’은 사전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재덕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시가에서는 임(임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시된 시어 중 ‘옥 그릇 열구리’는 화자가 임의 곁에 있었을 때의 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의미상 ‘미인’이 가리키는 대상과 가장 관계가 깊다.

10 ‘빈 비’는 사공도 없이 강에 놓여 있는 것이며, ‘반백 청등’은 빈 벽에 덩그러니 걸려 있는 푸른 등이다. 이 두 소재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11 ㉠은 윤선도의 「오우가」 중 제3수로, 바위의 불변성을 예찬한 시조이다. 꽃과 풀은 쉽게 변하는 존재인데 바위는 변치 않는다고 하여 바위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드러내고 있는 화자가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홍랑의 시조로, 임에 대한 사랑과 연모를 노래한 작품이다.
- ③ 박효관의 시조로, 가을밤 임 없이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 ④ 박인로의 연시조 「오류가」 중 하나로, 임금을 걱정하는 신하의 충성심을 드러낸 작품이다. 「속미인곡」이 충신연주지사임을 고려할 때, 이 시가의 화자가 불렀을 직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
- ⑤ 계랑의 시조로, 임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기녀 시조에 해당한다.

12 ‘브람’과 ‘믈결’은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화자 앞에 놓인 것으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해당한다.

13 ‘낙월(落月)’은 살아서는 임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한 화자가 차라리 죽은 후에 임을 만나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백성을 밝게 비추 주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14 '구준비'는 '낙월'과 마찬가지로 임과의 재회를 희망하는 화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별 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알아두기 정철, 「내 무덤 버혀 내여」

갈래	평시조	성격	연군가(戀君歌)
제재	별, 달	주제	연군의 정
특징	- 추상적 개념인 '마음'을 구체적인 대상('별', '달')으로 형상화함. - 임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자연물('별', '달')에 빗대어 표현함.		

작품 4

임경업전

본문 166~171쪽

- 01 ③ 02 ② 03 ③ 04 ① 05 ② 06 ④
07 ① 08 ③ 09 ⑤ 10 ④ 11 ③ 12 (대명과
함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왕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 오기 위해서이다. 13 ③

01 조선 시대의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에 허구적인 요소를 더해 쓴 국문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ㄷ, ㄹ).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적 영웅인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을 다루고 있다.

02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한 호왕은 임경업을 해하지 않고, 임경업의 원대로 세자와 대군을 풀어 주었다. 호왕이 임경업을 자신의 신하로 삼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은 임경업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일 뿐, 약소국인 조선을 무시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04 ㉡는 '매우 감탄하여 마음으로 따름.'을 뜻한다.

05 (다)~(마)에는 충성심이 뛰어난 영웅 임경업이 간신 김자점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고초를 겪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다.

06 [A]에서 김자점은 "이런 대역을 그저 두리이까."라는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 임경업을 잡아 가두고 처벌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07 임경업은 김자점의 흥계로 역적으로 몰려 옥에 갇혀 있으며, 김자점의 명으로 인해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경업의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인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오답 풀이 ② 각골난망(刻骨難忘):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감탄고토(甘香苦吐): 달던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무위도식(無爲徒食):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⑤ 배은망덕(背恩忘德):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08 ㉢에서 임경업은 역적으로 몰려 잡혀가면서도 백성들이 놀라지 않도록 신경 쓰며 자신의 무죄를 알리고 있다. 이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9 고전 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성격이나 감정 상태를 해석하거나,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및 감정 표출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와 ㉣에서 이러한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10 김자점은 끝내 무사에게 분부하여 임경업을 치게 하고, 난타질을 당한 임경업은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다.

오답 풀이 ① 임경업은 김자점의 흥계로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

② 임경업을 죽게 한 김자점은 왕에게 처형당한다.

③ 임금은 김자점만 금부에 가두라고 명한다.

⑤ 김자점은 자신의 세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임경업을 죽인다.

11 ㉢에서 김자점은 임경업을 가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밝히며 핑계를 대고 있다.

12 임경업이 ㉡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그 다음 문장에 제시된다. 즉 호왕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의 원수를 갚고, 호국에 끌려간 세자와 대군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13 병자호란은 조선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전쟁이었다.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배하였으며, 임금이 굴욕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것과 세자·대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에 끌려간 것도 당시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영웅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은 군담 소설이 유행했는데, 이는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복수를 통해 민족적 자존감과 정신적 승리감을 느끼려는 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단원 평가

본문 172~177쪽

- 01 ③ 02 ② 03 ① 04 ③ 05 ④ 06 ① 07 ②
08 ⑤ 09 (라),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10 ④ 11 ④ 12 ⑤ 13 ② 14 ④ 15 ④ 16 ④
17 ② 18 ④

0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심리와 태도까지 서술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서술하는 편집자적 논평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행복과 불행의 교차 반복은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글의 주제는 권선징악(勸善懲惡: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서생과 최 여인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고 있다.

- ③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시련(이별)은 두 사람의 사랑이 지극함을 드러내며, 사랑을 이루려는 두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이 글은 '최 여인의 환신과의 재회'를 기준으로 이승에서의 현실적인 사건을 다룬 전반부와 최 여인이 환신한 이후의 비현실적인 사건을 다룬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 ⑤ (라)~(마)는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 여인이 이 서생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으로, 이는 두 사람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한다.

03 [A]는 최 여인과의 행복했던 일에 대한 이 서생의 생각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관련이 깊다.

오답 풀이 ② 일취월장(日就月將): 날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 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유방백세(流芳百世):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을 이르는 말이다.

04 ㉠의 '규중'이란 부녀자가 거처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05 ㉡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인연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6 <보기>와 달리 이 글에서는 인물들의 심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인물들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라는 소설 갈래의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두 글 모두 자아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두기 **작자 미상, 「호원」**

갈래	설화(사원 연기 설화)
성격	불교적, 전기(傳奇)적
제재	호랑이의 살신성인(殺身成仁)
주제	김현과 호랑이 여인의 사랑
특징	•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내용을 전개함. • 변신형 설화 모티프를 사용함. • 신이하고 환상적인 요소가 드러남.

07 (가)는 중장과 종장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임(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개와 지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는 <제2수>의 종장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8 (라)는 사실시조로, 시기상 (다)의 연시조보다 나중에 발달하였으며, 조선 후기 서민들의 대표적인 시조 양식이 되었다.

09 (라)에서 화자는 '창'을 매개체로 하여 내면적 고뇌를 해소하고 있다. (라)의 초장에서는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와 같은 'a-a-b-a'의 문장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며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10 (가)는 세조의 단종 폐위(廢位)에 적극적으로 항거한 작가가 단종에 대한 자신의 굳은 절개와 지조를 노래한 절의가(節義歌)이다. 화자는 지조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제(백이와 숙제)'에 대하여, 주나라 땅에서 자란 고사리로 연명한 처사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절개가 '이제'보다 더 굳은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시가는 수양 대군(세조)을 의미하는 '수양산'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를 원망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만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보다 잘 헤아릴 수 있다.

11 <보기>는 현대 시조로, 2구가 하나의 장을 이루는 고시조와 달리, 1구가 하나의 행을 이루며 2행이 4음보의 음율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는 「만흥」, <보기>는 「벽공」으로 모두 제목이 있다.

- ②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의 음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다)는 여러 자연물을 통해 자연 속의 삶을 예찬하고 있으며, <보기>에 비해 감각적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⑤ <보기>의 화자는 가을 하늘을 예찬하며 자연처럼 아름답지 못한 인간 세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알아두기 **이희승, 「벽공」**

'벽공'은 '푸른 하늘'이라는 뜻으로, 이 작품은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찬하고 있는 현대 시조이다.

갈래	현대 시조
성격	감각적, 묘사적, 영탄적, 예찬적
제재	가을 하늘
주제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대한 예찬과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 맑고 깨끗한 하늘을 인간사와 대조하고 여운을 줌. • 초장, 중장, 종장을 연으로 나누어 쓴 구별 배행 시조임. •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등 감각적 수법이 엮임.

12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서'라는 표현은 지는 달이 되어서라도 임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임(임금)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시가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모두 작가의 분신으로,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다. 특히 여성 화자를 설정한 이유는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② '턴상 빅옥경'은 관직에서 물러난 자신의 처지를 천상계에서 버림받아 하계에 내려온 여인에 비유한 표현으로, 임의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임(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이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곧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는 간신을 상징한다.

④ <보기>에서 이 시가는 작가가 당쟁에 휘말려 탄핵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은거 생활을 할 당시에 지은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화자의 하소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13 ㉠의 중심 화자는 ㉡의 보조 화자에게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라고 말하며, 자신이 겪은 서러운 일을 토로하고 있다.

14 ㉔는 화자의 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본 임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15 이 글에는 세련되고 우아한 우리말 표현이 나타나 있으나, <보기>에는 한문 위주의 표현이 나타나 있다.

알아두기 박인로, 「누항사」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3년(1611)에 박인로가 지은 가사이다. 작가가 자신이 사는 형편에 대해 지은 가사로, 임진왜란 이후 당면한 작가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갈래	가사	성격	전원적, 사색적, 사실적
제재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생활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		
특징	• 자연에 은일(隱逸)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임진왜란 이후 당면한 작가의 현실과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드러남.		

16 (다)에서 임금은 임경업을 음해하려는 김자점을 크게 꾸짖고 있다. 즉, 임금은 간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임경업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 호왕이 ㉑과 같이 한 이유는 임경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임경업의 충의에 매우 감탄했기 때문이다.

18 이 글의 주인공인 임경업과 <보기>의 주인공 박 씨는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들로, 사적인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공적인 일을 위해 발휘하는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

알아두기 작자 미상, 「박씨전」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국문본 여성 영웅 소설이다. 박색(薄色)인 박씨 부인이 뛰어난 학식과 재주로 남편 이시백을 평안 감사가 되게 한 후, 자신도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어 외적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갈래	군담 소설, 역사 소설, 국문 소설, 영웅 소설
성격	허구적, 전기(傳奇)적, 비현실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병자호란 때, 조선
제재	박 씨의 영웅적인 기상과 재주
주제	전쟁 패배의 굴욕감 극복과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
특징	• 남성보다 뛰어난 영웅적 면모를 지닌 여성이 주인공임. •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함. • 병자호란의 패배를 허구적 장치를 통해 정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남.

(3) 개화기~일제 강점기의 문학

확인 문제

본문 178~181쪽

01 ㉔ 02 신체시 03 ㉑ 04 ㉑ 05 무정 06 ㉔
07 감상적 낭만주의 시 08 ㉑ 09 ㉑ 10 민족 말살
통치 11 청록파 12 ㉔ 13 극예술 연구회 14 ㉔

작품

1

산대지

본문 182~187쪽

01 ㉑ 02 ㉔ 03 ㉔ 04 ㉑ 05 ㉑ 06 ㉑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㉑ 12 동학 농
민 운동 13 ㉔ 14 최원봉의 아버지(박정식)

01 이 글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에 해당하는 '희곡'으로(㉑),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다(㉑). 따라서 이 글은 관객의 눈앞에서 현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직접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㉑).

오답 풀이 ㉑. 희곡의 구성 요소는 대사, 해설, 지문이다. 구성 요소가 장면, 대사, 해설, 지문인 것은 시나리오이다.
㉒.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배경이나 등장 인물 수에 제약이 따른다. 이와 같은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시나리오이다.

02 최 주사댁은 최영순의 어머니로, 남편이 데려온 최원봉을 키웠다. 최 주사댁은 평소 최원봉이 정숙을 사귀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정숙이 다른 사람과 일본으로 떠나자 최원봉에게 정숙을 잊으라고 권유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딸인 최영순과 최원봉의 친구인 차혁을 이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03 (가)와 (나)에는 최영순을 차혁에게 시집보내려는 최 주사댁과 이를 반대하는 최원봉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최원봉 역시 최영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 주사댁의 행동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04 최원봉은 한번 집돼지가 되어서 구정물을 얻어먹기 시작하면 영영 집돼지로밖에 못 있는 거라며, 집돼지가 들돼지나 산돼지로 퇴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05 최원봉은 자신에게 진실을 숨기려는 최 주사댁에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 최원봉은 자신과 최영순이 남매가 아님을 짐작하고 최영순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처럼 귀한 최영순을 최 주사댁이 '집돼지'에 불과한 차혁과 맺어 주려고 하자 답답해하는 것이다.

06 ㉑~㉔ 중, ㉑의 '보석', ㉒의 '값이 비싼 귀중한 것', ㉓의 '진주'는 최영순을 가리킨다. 그리고 ㉔의 '돼지'와 ㉕의 '집돼지'는 차혁을 가리킨다.

07 (다)에서 “어머니가 곡절을 이야기 안 해 주시니까 내가 더 말씀해 드릴까요?”라는 대사나, (라)에서 “어머니, 거짓말도 그만하고 눈치 따기도 그만하기로 합시다.”라는 대사를 볼 때, 최원봉은 최 주사댁이 자신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다)에 나타난 옛날이야기는 최원봉이 친부모의 사정으로 최 주사 집에 맡겨진 과거의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물과 음식, 삽살개 등은 특정 인물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이를 표면적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최 주사댁은 귀에 못이 박히다시피 들은 돼지 이야기에겐 진저리를 치지만, 최원봉의 꿈속 이야기는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⑤ 최원봉은 자신과 최영순이 친남매가 아님을 짐작하고, 최영순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차력과 최영순의 교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08 (다)의 옛날이야기에서 ‘도적놈’은 ‘삽살개’가 지키는 공간에서 ‘보물과 음식’, ‘별별 보화와 산해진미’를 훔쳐 가려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도적놈’은 최원봉에게서 최영순을 뺏아 가려는 차력을 가리킨다.

09 최원봉은 집 안에 갇힌 산돼지처럼, 자신의 이상이나 사명을 좇지 못하는 현재의 처지에 무기력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은 이러한 인물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이를 통해 최원봉의 신경 쇠약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시대적인 것에 있음을 암시한다. ㉡은 최영순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최원봉의 감정과는 관련 없다.

10 최 주사댁은 최원봉이 자신의 출생에 관련된 비밀을 눈치챈 듯이 “영순이와 내가 정말 친남매간입니까?”라고 묻자,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과 같이 말한다.

11 (바)에 제시된 최원봉의 몽환 장면에서 표현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최원봉의 내적 갈등 및 의식 세계를 비현실적으로 그려내었다. 따라서 이 글은 사실주의 희곡이라기보다는 표현주의 희곡이라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최원봉의 친아버지는 동학당으로서 실천적이고 강한 역사의식을 지닌 인물이다. 최원봉이 자신의 친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아버지가 지닌 역사적 소명을 의식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는 최원봉의 반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③ 이 글은 식민지 지식인 청년이 겪는 좌절과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이러한 인물의 갈등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

④ 최원봉은 현실적 제약에 불만과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이런 최원봉의 모습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저항에 대하여 아쉬움을 보일 수 있다.

⑤ 이 글의 제목인 ‘산돼지’는 최원봉과 같이 억압된 현실에 고뇌하던 당시의 지식인으로 볼 수 있다.

12 (바)의 팬터마임에서 ‘궁을’과 ‘동심의맹’ 등은 동학 농민 운동의 상황을 보여 주는 단서이다. 이를 통해 (바)의 몽환 장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동학 농민 운동’임을 알 수 있다.

13 (바)의 무대 해설은 ‘천천히 그러나 무거운 수천 리 걸어온 피로된 보조로 지나간다.’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는 동학 농민 운동이 실패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므로, 힘찬 동작이 아닌, 지치고 느린 동작을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14 최원봉의 친아버지인 박정식은 동학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참수를 당한 인물로, 동학당으로서 실천적이고 강한 역사의식을 지녔다. 최원봉은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사회 개혁의 숙명을 인식하지만, 현실적 제약에 무기력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2

작품 **태평천하**

본문 188~195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①	05 ④	06 ⑤
07 ①	08 윤종학	09 ⑤	10 ⑤	11 ④	12 전보
13 ④	14 ⑤	15 ④	16 ⑤	17 ④	18 ④
19 부랑당 패	20 ③	21 ②			

0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민족의식이 결여되고 이기적인 윤 직원 영감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라는 윤 직원 영감의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와 같이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풍자 대상인 윤 직원 영감을 희화화하고 격하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② ‘부르짖은 적이 있겠지요.’, ‘과연 승리를 했겠지요.’ 등 판소리적 문체를 사용하여 윤 직원 영감의 행위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다.

④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와 ‘갈라 앉았습니다.’, ‘밥을 참입니다.’에서는 ‘-바니다’의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작가와 독자가 직접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윤 직원 영감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극대화하고,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공유하게 한다.

⑤ ‘그것은 당시의 ~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부정적 인물인 윤 직원 영감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윤 직원 영감은 서울의 대지주이지만 인력거의 삿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

오답 풀이 ① 윤 직원 영감의 아버지(윤용규)는 구한말에 화적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② 윤 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화적들과 같은 불한당을 막아 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돈을 기부한다.

④ 윤 직원 영감의 아들과 손자는 가산을 탕진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⑤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급까지 하는 세속적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다.

03 (가)의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지요.'라는 문장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한 불신과 피해 의식이 강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글은 총 1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소설로, 각 장에 ㉠과 같은 소재목이 달려 있으며(㉠), 이 글에서 소재목은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판소리계 소설이란 '춘향전', '심청전' 등 일반적으로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로 정착된 작품을 말하는데,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과는 관련 없다.

㉠. 소재목에 담긴 의미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과 그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작품 속 시대적 상황은 알 수 없다.

05 (마)에서 윤 주사가 등장하자마자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라거나, ".....멋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라는 윤 직원 영감의 반응을 보았을 때, 평소 윤 직원 영감이 윤 주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6 (마)에서 윤 직원 영감이 윤종학의 피검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주저앉는 모습에서, 윤 직원 영감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07 (다)에서 윤 직원 영감은 재주가 있고 성실한 윤종학에 대해 "내가 그 놈 하나면 꼭 믿는다 꼭 믿어."라고 말하며 윤종학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08 이 글에서 유일하게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인물은 윤 직원 영감의 둘째 손자인 윤종학이다. 윤종학의 피검을 알리는 전보를 통해 윤 직원 영감의 몰락이 예고되는데, 작가는 이러한 윤종학을 긍정적인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윤 직원 영감의 허위의식을 무너뜨리고 일제 강점기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09 '전보(㉢)'는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매개체로, 사건 전개에 극적인 반전을 유도하며 윤 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을 예고한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윤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윤 직원 영감 집안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10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사건이나 인물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에서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고 있다.

11 (사)에서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 더 분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즉, 윤 직원 영감은 윤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한 것에 강하게 분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바)에서 윤 직원 영감이 민 서방이 번역한 전보를 읽었다는 것으로 보아, 일본어는 읽지 못하지만 한글은 읽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에서 윤 직원 영감이 놀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즉, 윤 직원 영감이 윤종학의 안위보다 그가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고 강하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바)에서 윤 주사는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라고 하였다. 따라서 윤종학이 직접 전보를 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아)에서 윤 주사는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보긴 했어요!"라고 말한다. 따라서 윤 주사가 윤종학의 사회주의 운동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윤 직원 영감의 심리는 전보를 받기 전과 전보를 받은 후가 대조되어 나타난다. 전보를 받기 전에는 윤종학이 경찰서장이 되어 집안을 유지해 줄 것을 바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지만, 전보를 받은 후에는 사회주의에 참여한 윤종학에게 분노하며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절망하고 있다.

13 [A]의 고사는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 내부의 자손들, 특히 윤종학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윤 직원 영감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윤종학에게 큰 기대를 했으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은 윤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시청에 피검된 사실을 전하는 전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탄압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 윤 직원 영감은 일본에 유학 중인 윤종학이 일본 경시청에 잡혀 들어갔다는 사실에 놀라고, 윤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놀란다. 그리고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며 몸의 중심을 잃는데, 이런 윤 직원 영감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의미하는 '망연자실(茫然自失)'이다.

오답 풀이 ㉠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의吉凶禍福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결초보은(結草報恩):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으로,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다.

㉢ 견문발검(見蚊拔劍):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라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이다.

㉣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라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이다.

16 윤 직원 영감은 사회주의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회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윤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17 (자)~(카)에서 윤 직원 영감은 현실의 모습을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며 친일파, 대지주로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당시 친일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풍자함과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식민 치하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18 (차)에서 몹시 분노하여 고함을 지르는 윤 직원 영감의 모습을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차)는 윤 직원 영감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손자에 분노하며 혼자서 울분을 터트리는 장면으로, 인물 간의 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차)에서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돈되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마구 쏟아 내는데, 줄임표는 이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줄임표가 인물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윤 직원 영감은 일제 강점기인 지금 시대가 태평천하임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윤 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일관되게 보여 줄 뿐, 인물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이 글은 일제 강점기를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인식하는 윤 직원 영감을 풍자하는 작품이므로, 인물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 윤 직원 영감은 (차)에서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응응?”이라고 말하며 사회주의자들을 ‘부랑당 패’로 표현하고 있다.

20 윤 직원 영감은 화적패와 불한당 같은 수령이 없고, 일제의 치안 유지와 공평한 정책 실시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며, 일제가 군사 징병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외세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현실의 모습을 태평스럽고 편안한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1 ㉠은 포효하며 분노하는 윤 직원 영감의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는 가족들의 반응을 비유한 표현이다(㉡). ‘장수의 죽음’은 윤 직원 영감의 몰락을 의미하므로, ㉠은 윤 직원 영감의 몰락과 함께 윤 직원 영감 일가가 붕괴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장수’는 윤 직원 영감을, ‘군졸’은 윤 직원 영감의 가족들을 가리킨다.

㉢. 윤 직원 영감의 일가는, 친일 행위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비윤리적인 중산층에 속한다.

3

작품

쉽게 씌어진 시

본문 196~197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①

01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한 작가의 생활 모습과 고민이 고백적이며 반성적인 어조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반성하고, 자아 성찰을 통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후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 보내 주신 학비 봉투’,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을 통해 시적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② 어둠의 이미지로 부정적 시대 현실을 의미하는 ‘밤비’와 ‘어둠’, 밝음의 이미지로 긍정적 미래를 의미하는 ‘등불’과 ‘아침’이 대조되며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③ 6연에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하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무기력한 자신을 반성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④ 이 시에는 암울한 시대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이상적 자아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10연에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시구를 통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살펴볼 수 있다.

02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고 이에 무장 투쟁으로 저항하는 독립 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다. 특히 ‘부끄러운 일’에는 시를 쓰는 일을 시대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다. 이처럼 화자는 시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⑤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9연에서 화자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광복에 대한 믿음으로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03 [A]의 ‘밤비’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며(㉠), 어둠의 이미지로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시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가 8연에서 변형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재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 6장을 깔아 놓은 좁은 방으로, 호화로운 생활과 거리가 멀다.

04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암울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시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화자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통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이는 데 비해, <보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면서 미래의 광복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보기>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보기>는 조국 광복을 실현할 존재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나타나 있으며, 종결 어미 ‘-(리)라’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산맥을 의인화하여 대지 위에 산맥이 생성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이 시의 6연, 9연, 10연에서 ‘나’라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 <보기>의 4연에서도 표면에 드러난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기 이육사, 「광야」

이 작품은 광야의 모습을 인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며,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저항적, 상징적
제재	광야(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주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
특징	•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종결 어미 ‘-(리)라’의 반복적 사용으로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함. • 각 연을 균등하게 3행씩 배열하고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배열 방식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획득함.



- 01 ② 02 ④ 03 ④ 04 가족사, 풍자 05 ⑤ 06 ①
07 태평천하 08 ④ 09 ⑤ 10 ③ 11 두 자아(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12 ①

01 (나)는 최원봉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짐작한 내용을 옛날이야기를 통해 최 주사댁에게 말하는 부분이다. 최원봉이 누이동생인 최영순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 고민하는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최영순의 혼인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최원봉과 최 주사댁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③ (다)에서는 조명이 어두워지고 몽롱한 달빛 같은 창백색이 나타나면서 최원봉의 꿈속 장면으로 바뀌는 무대 배경이 묘사되고 있다.

④ (라)에는 '동한 중의 별판'이라는 몽환 장면의 계절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⑤ (마)는 최원봉이 꿈속에서 보는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을 팬터마임으로 보여 주고 있다.

02 최원봉의 입장에서 ㉔의 '도적놈'은 자신이 지키는 '별별 보화와 산해진미'로 비유되는 최영순을 탐내는 차학을 의미한다.

03 '산돼지 탈'은 아버지가 남긴 사명에 부담감을 느끼는 최원봉의 내면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최원봉의 아버지는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하여 나라와 백성, 사회의 개혁을 위해 싸우다 죽었을 정도로 실천적이고 강한 역사의식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③ 최원봉은 아버지가 남긴 사명과 역사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운명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실적 제약에 대한 불만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지식인이다.

⑤ 최원봉은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산돼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04 이 글의 전체 내용은 구한말에서 개화기,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수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의 대지주인 윤 직원 영감을 중심으로 그의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그려 낸 '가족사 소설'이다. 또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역사적식마저 없는 윤 직원 영감이라는 부정적 인물에 대해 반어, 비유, 과장, 희화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롱하며 비판하는 '풍자 소설'로, 일제 강점기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05 (가)에서 윤 직원 영감이 구한말에 자신의 아버지가 화적패에게 죽임을 당하자, 윤 직원 영감은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라며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는다. 이를 통해 볼 때 윤 직원 영감은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6 윤 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둘째 손자 윤종학이 경찰서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윤종학을 각별히 총애하고 믿었다.

하지만 윤종학이 부랑당(불한당) 패와 같은 사회주의를 하다가 피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한다. 이런 윤 직원 영감의 심정은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뜻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손자 덕에 흰 수염 나겠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는 손자가 늙어 버리고 말겠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오랫동안 기다리기가 싫증이 나고 지루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③ 무식한 도깨비가 부작을 모른다.: 무식한 사람이 제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크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말이다.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는 아무리 비밀로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⑤ 안전한 고양이와 부두막에 먼저 올라간다.: 겉으로는 안전하고 아무것도 못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땀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7 윤 직원 영감이 말하는 '태평천하'는 실제로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과 수탈을 자행하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따라서 '태평천하'는 윤 직원 영감의 잘못된 현실 인식을 풍자하는 반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8 ㉔의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과거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 이전의 구한말 시기를 의미한다. (라)의 '거리거리 순사요, ~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에서 일제 강점기라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09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시로, 일제 강점기를 살아야 했던 지식인 청년의 참회와 성찰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에서 시를 쓰며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어두운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10 ㉔은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고 이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는 시를 쓰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화자의 고뇌와 성찰이 나타난 표현이다.

11 ㉔은 화자의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나타낸 표현으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12 이 시는 반성적 어조의 자기 성찰을 통해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보기>는 강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시는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는 반면, <보기>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④ 이 시와 <보기>는 모두 독백의 형태로, 억압된 현실에 대한 저항과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이 시는 자아 성찰에 따른 부끄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4) 광복 이후의 문학

확인 문제

본문 202~203쪽

- 01 ⑤ 02 전쟁, 인간성 03 ④ 04 ⑤ 05 ④
06 ①

작품



광장

본문 204~211쪽

- 01 ① 02 ② 03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04 ① 05 ④ 06 ⑤ 07 ④ 08 ② 09 ①
10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 11 ⑤ 12 ② 13 푸
른 광장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③
19 ⑤ 20 ④ 21 ①

01 이 글은 분단 소설로, 1950년에 발생한 6·25 전쟁 이후 고착된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고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 속에 반영된 역사적 사건은 허구적 이야기에 사실감을 더해 준다.

02 이 글의 주인공인 명준은 대학생 때 아버지의 월북으로 인해 치안 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는다(ㄷ).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낀 명준은 월북한 후, 6·25 전쟁에 인민군 장교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ㄱ).

오답 풀이 ㄴ. 명준은 남한에서 생활하다가,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월북한다. 이를 통해 명준이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생활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가)와 (나)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명준이 중립국에서 생활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ㄹ. (나)에서 북한 측 설득자가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 일터 제공, 인민의 영웅으로서의 존경, 고향의 초목 등을 언급하며 명준을 설득하려 하나, 명준은 단호한 태도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명준이 고향의 초목을 그리워하거나 금의환향의 소망을 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A]에서 북한 측 설득자는 중립국 역시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자본주의 나라라며,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04 ㉠에는 6·25 전쟁에 인민군 장교로 참전했다가 전쟁 포로가 된 명준이, 남한 측과 북한 측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05 이어지는 장면에서 장교는 눈길을 다음 포로에게 옮겨 명준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명준에게 날카롭게 무언가를 외치는 중공 대표의 모습과 못마땅한 어조로 말을 내뱉는 장교의 모습을 통해, 북한행을 끝내 거부하는 명준에게 장교가 적대적인 행동을 보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로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가 가장 적절하다.

06 (라)는 명준이 포로 송환 심사 과정에서 중립국을 선택한 후, 웃음을 터뜨리는 부분이다. 실제 명준의 마음(허탈감, 비애, 절망감 등)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라)는 인물의 행동 묘사에 초점을 두어 주인공 명준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다)의 ‘아까부터 그는 ~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에서 명준이 남한 측 설득자와의 대화를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명준은 중립국을 선택하려고 하고, 남측 설득자는 그런 명준에게 남한을 선택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명준과 남측 설득자는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명준은 허탈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웃음을 터뜨리며 실제의 마음과는 괴리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07 명준의 상상 속에서 남측 설득자는 남한의 이념적 우위를 제시하고(ㄱ), 조국애를 강조하며(ㄷ),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부탁하고 있다. 또한 명준이 남한으로 올 경우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하겠다고(ㄹ) 명준을 설득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남한 측 설득자는 명준이 지식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남한 사회의 불만을 언급하였으나, 추가적인 고등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보장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08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어떠한 설득에도 중립국을 선택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즉 ㉠은 상대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통해 인물의 의지를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09 명준은 남한과 북한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느끼고 남한과 북한 사회의 한계를 인식한다. 즉 명준은 이념의 환상을 좇다 지쳐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없는 중립국을 선택한 것이다. 이때 중립국은 단지 이념 문제가 배제된 공간일 뿐, 인간의 진정한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 남한 측 설득자는 명준이 고등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임을 파악하고, 지식인이 가질 수 있는 남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며 명준을 설득하려고 한다. ‘제 몸’과 ‘중기(㉡)’는 각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 지닌’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비유한 표현으로, 남한 측 설득자는 이를 통해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11 (마)~(바)는 명준의 관념적·철학적 사색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마)~(바)를 감상할 때에는 명준이 사색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명준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감상해야 한다.

12 (마)의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라는 서술을 통해 대학생 시절의 명준은 정치에 강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철학과 학생이던 명준이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대학 신문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통해, 명준이 지식인으로서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명준은 남북한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성격까지 마음대로 골라잡으며 새사람이 되기 위해 배를 탔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은혜는 명준이 월북한 후 만난 여성으로,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 '방금 태어난 아기', '내 딸' 등의 표현을 통해 은혜가 명준의 아이를 가졌으나 아이를 임신한 채 죽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명준은 북한으로 밀항하던 때를 회상하며 그때 배 안에서 말은 고기 썩는 냄새와, 북한에서의 삶의 희망을 기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13 '푸른 광장'은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를 뜻한다. 즉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4 ㉔는 부채의 사복 자리로, 중립국으로 떠나는 명준의 현재 처지를 보여 준다. 이는 명준이 현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삶의 극한점에 있으며,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에 와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㉕는 남한에서의 대학 시절에 해당하는데, 명준이 남한이 아닌 중립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명준이 남한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㉖의 웃음에는 북한 사회에 실망하면서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웃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맥락상 ㉖과 바꾸어 쓰기에는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다. 또는 그렇게 웃다.'를 의미하는 '조소(嘲笑)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폭소(爆笑)'는 '웃음이 갑자기 세차게 터져 나옴.'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부인(否認)'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책망(責望)'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폭로(暴露)'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냄. 흔히 나쁜 일이나 음모 따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의미하는 말이다.

16 ㉗는 명준을 가리키며, 나머지는 모두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두 마리 새를 가리킨다.

17 이 글은 전쟁으로 생긴 개인과 사회의 상처를 반전(反戰)의 개념 속에서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남한과 북한의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정면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인물을 그려 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18 <보기>에 의하면 '개인의 광장'은 '밀실'을 가리킨다. '밀실'은 내밀하면서 개인적인 삶의 공간으로, 이는 자유롭지만 사회적 소통이 결여된 남한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명준이 북한으로 갈 때에는 '광장', 즉 '대중의 밀실'에 대한 기대를 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광장'은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이상을 실천하는 공간을 상징한다. 반면 '밀실'은 개인적 삶의 공간으로,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삶의 공간을 상징한다.

②, ④ 남한은 겉으로는 자유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회적 소통이 결여된 곳으로, '광장이 부재한 밀실'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모든 의사결정이 사회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개인의 자유가 없는 곳으로, '밀실이 부재한 광장'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는 인간을 '광장'과 '밀실', 이 두 가지 공간 중 어느 한쪽에 가두어 버리면 살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준이 추구하는 이상향은 광장과 밀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이면서 인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그러나 명준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이와 같은 공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투신이라는 현실 도피적인 행동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한 인간의 행방불명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타고르호의 행로와 거대한 몸체는 명준의 죽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는 비극적인 상황이므로, 밝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배경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20 (사)는 이 글의 주인공인 명준이 바다로 투신했음을 다른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미스터 리 말입니다."라는 제3자의 말을 통해 명준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신을 선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 타고르호가 향해하던 내내 동행하던 바닷새가 명준의 자살 이후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를 통해 ㉙이 명준의 의식의 투사물임을 알 수 있다.

작품 **2**

01 ③ 02 ① 03 ⑤ 04 ④ 05 ④ 06 일렬 이

열 삼렬 횡대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본문 212~213쪽

01 이 시는 애국가가 시작하는 시점과 애국가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시상이 전개된다. 애국가의 구절인 '삼천리 화려 강산'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를 인용하여, 애국가를 듣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02 이 시의 1~2행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의무적으로 애국가를 경청해야 했던 화자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군사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압을 겪어야 했던 1980년대의 시대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03 [E]에서는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와 같이 시구를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깊은 좌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04 '삼천리 화려 강산'은 원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만, 이 시에서는 답답하고 암울한 군사 독재하의 억압적인 현실을 반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㉙에는 표현하려는 원 뜻과 정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수사법인 '반어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에서는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심정을 반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김동명, 「내 마음은: 원관념(「내 마음」)과 보조 관념(「호수」)을 연결어 없이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법이 쓰였다.
- ② 김수영, 「껍데기는 가라: 상징적인 표현(「껍데기」, 「알맹이」)과 반복법(「껍데기는 가라」)과 대조법(「껍데기」 ↔ 「알맹이」)이 쓰였다.
- ③ 정지용, 「유리창 1: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인 역설법(「외로운 황홀한 심사」)이 쓰였다.
- 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마치」, 「흙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관념(화자의 마음)과 보조 관념(「부끄럼」, 「물결」)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수사법인 직유법이 쓰였다.

05 ㉠은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들의 모습과 대조하여 현실에 구속된 화자 자신의 처지를 냉소적인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어조를 통해 애국심이 강요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자기들끼리」가 가리키는 대상은 새들이다. 여기에 화자는 배제되어 있다.
- ② 「끼룩」은 「기러기나 갈매기 따위의 새가 우는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이나, 이 시에서는 단순히 새가 우는 소리가 아니라 조롱과 야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화자는 「끼룩」거리며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을 보며, 자유롭게 못한 자신의 현실을 떠올리고 있다.
- ⑤ 화자는 「끼룩」, 「낄낄」, 「낄꺄」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애국과 염속을 강요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06 「일렬 이열 삼열 황대로」는 스크린 속 흰 새 떼가 줄을 맞추어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획일화된 사회 질서, 규칙 등을 강요하는 군사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표현이다.

작품 3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본문 214~217쪽

- 01 ③ 02 ② 03 ③ 04 나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05 ② 06 ④ 07 ② 08 ⑤
09 ④ 10 ④ 11 ② 12 ⑤

01 (가)~(라)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감옥에서의 경험과 차치리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ㄴ니다」로 종결되는 경어체와, 차분하고 설득적인 어조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ㄴ. 이 글은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유기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ㄷ. (다)와 (라)에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02 글쓴이는 (가)에서 감옥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신발을 사기 위해 집에 두고 온 「탁」을 가지러 되돌아갔던 차치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두 일화는 독립된 이야기로, 서두에 제시되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독자가 글쓴이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① (나)에만 인물의 대사가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가)는 인물의 대사 없이, 글쓴이의 서술로만 상황이 전달되고 있다.

- ③ (나)는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의 내용으로, 사건의 선후 관계만을 본다면 (가)의 사건보다 (나)의 사건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와 (나)는 독립적인 일화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가)에 집 짓는 순서가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과정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탁」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을 뿐, 건축 용어에 대한 풀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와 (나)에는 문제의 해결 과정이 제시되지 않는다.

03 노인 목수는 보통의 사람들이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는데와는 다르게 집을 짓는 순서대로 집의 모양을 그렸다. 노인 목수는 실제 집을 짓는 「주춧돌-기둥-도리-들보-서까래-지붕」의 순서대로 집의 모양을 그렸는데, 이것은 실제 생활에 토대를 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04 노인 목수가 집을 짓는 순서에 따라 집을 그리는 것을 본 글쓴이는 노인 목수의 그림이 실제 생활에 토대를 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글쓴이는 실재를 몰랐던 자신의 무심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을 느낀다. 「서가」는 실재가 아닌 지식이나 이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것은 실제로 기초하지 않은 자신의 지식 체계가 부정당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05 차치리는 본질에 해당하는 「목적」과 비본질에 해당하는 「수단」을 혼동하여, 불필요한 고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차치리에게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주객전도(主客顛倒)」를 활용하여 ②와 같이 말해 줄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자가당착(自家撞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우공이산(愚公移山):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⑤ 갑론을박(甲論乙駁):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을 이르는 말이다.

06 (다)에서 글쓴이는 본질이 아닌 것과 본질인 것을 함께 나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탁, 교실, 종이, 의상, 화폐, 임금, 이론」은 본질이 아닌 것에, 「죽, 공장, 망치, 사람, 물건, 노동력, 실천」은 본질인 것에 해당한다.

07 「발」과 「탁」은 각각 「본질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산다는 것」은 상황의 본질을 알아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간다는 것」은 상황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③은 「본질을 아는 이」를, ⑥은 「본질을 모르는 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08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독자인 당신에게 진정한 「합격자」가 되라는 당부와 함께,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희망적인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⑤의 내용은 글쓴이가 이 글을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글쓰이는 새 출발을 앞둔 사람들이라는 구체적인 독자를 설정하고, 편지글의 형식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마)~(바)에서 글쓰이는 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사회와 대학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살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대학은 허구적인 이론을 현실에 맞는 새 이론으로 창조할 수 있는 곳이라며 진정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사)의 글쓰이의 말 중 “주춧돌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는 서두에서 제시한 일화 중 노인 목수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활용한 것으로,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바)에서 글쓰이는 “당신은 그동안 못 했던 일을 하고, ~ 당신의 질곡을 모르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독자의 삶과 꿈을 언급하며 독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09 <보기>에서 글쓰이는 지식 습득이 세계 인식과 인간에 대한 성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실천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글쓰이는 본질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천하는 삶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쓰이가 추상적인 관념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마)~(바)에서 글쓰이는 대학을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 ‘안이한 연루를 결별하고 사회와 역사와 미래를 보듬는 너른 품을 키우는 공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연대의 장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 ‘교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살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사회이다.

11 ㉠은 표면적으로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 합격자, 입시를 끝내고 새로운 사회를 접하게 되는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주제 전달을 위하여 설정된 장치로, 이면적으로는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특히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과 형식에 집착하는 현대인으로 볼 수 있다.

12 (바)에서 글쓰이는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라며, 인간관계의 넓이가 곧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에서는 수능 시험 성적 100점을 받은 당신의 위치가 큰 자유와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바)에 제시된 자유와 낭만의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는 ‘수많은 곳,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적절하다.

단원 평가

본문 218~221쪽

- 01 ④ 02 ⑤ 03 ② 04 ③ 05 사북 자리 06 ⑤
07 ⑤ 08 ⑤ 09 하는데 10 ⑤ 11 ① 12 ③
13 ② 14 이 글에는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뒤바뀌어 있는 세태가 반영되어 있고, <보기>에는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세태가 반영되어 있다.

01 (가)~(라)는 명준이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 장면이다. 북측과 남측의 설득자들은 명준을 회유하기 위해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명준은 그들의 호의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라)를 감상할 때에는 서로 입장이 대치되는 작품 속 광경을 떠올리며, 명준의 심리를 헤아려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제시된 부분에서는 공간의 이동이나 시간의 흐름을 살피 볼 수 없다.

- ③ (다)~(라)에서 남측의 설득을 거절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명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명준이 과거에 대해 회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글은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고 창작된 분단 소설로, (가)~(라)에 비현실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남측 설득자는 명준을 설득하기 위하여, 현재 남한 사회에는 지식인인 명준이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지식인의 사명감에 호소하고 있다. 또한 명준에게 호감을 보이며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며 설득하고 있다.

03 명준은 남한과 북한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설득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중립국.”이라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중립국을 선택하겠다는 명준의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야 하므로, 지시문으로 ‘단호한 목소리로’가 적절하다.

04 ㉠의 ‘제 몸’은 조국인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종기’는 대한민국이 지닌 과도기적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 현재 남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조국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은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 저 덩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을 표현하는 속담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되거나, 강직한 사람이 남의 공박을 받는다는 말이다.

- ② 단삼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좁은 입으로 말하고 넓은 치맛자락으로 못 막는다: 말은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서 하라는 말이다.

05 부채의 ‘사북 자리’는 명준이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은 현재의 처지를 가리키며, 명준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극한점이자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에 있음을 의미한다.

06 (마)를 통해 명준이 푸른 광장으로 표상되는 바다에 투신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현실 도피적 공간을 선택했다가 바다로 투신하는 것은 이념 선택의 한계와 분단 상황에 대판 비판적 인식을 보여 준다. 따라서 ㉠에서 ㉡으로의 이동이 이념 선택의 한계에 대한 극복 가능성과 희망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명준은 남한과 북한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느끼고 남한과 북한 사회의 한계를 인식한다. 즉 명준은 이념의 환상을 좇다 지쳐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없는 중립국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명준의 선택이 절망적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중립국은 인간의 진정한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 아닌, 단지 이념이 배제된 공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푸른 광장'은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를 가리킨다. 즉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며,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07 ㉔의 '거울 속 남자'는 명준 자신이다. 그가 활짝 웃는 이유는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마음껏 날고 있는 공간에 몸을 던질 결심을 한 후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이다.

08 (나)는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표현한 1970년대 농민시의 대표작이다. 농무는 1970년대의 비극적인 농촌 현실과 농민의 울분을 드러내는 소재로, 집단적인 한풀이의 성격을 지닌다. 이 시에서 의문형 어미가 쓰이기는 하였으나, 농무를 통해 분노와 한을 승화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을 뿐 독자의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끼룩', '낄낄'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애국과 염속을 강요하는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② (가)는 '자리에 앉는다 / 주저앉는다'에서 점층적인 반복을 통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깊은 좌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는 '답답하고 고달픈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까짓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등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농촌의 암담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 사용된 전통적 소재인 '농무'는 원래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즐거움을 위해 풍물놀이와 맞추어 흥겹게 추던 춤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풀어내는 수단이자,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과 비판을 발산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단합과 즐거움의 기능이 소멸된 농무를 통해 농촌의 붕괴를 보여 주기도 한다.

알아두기 **신경림, 「농무」**

이 작품은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정책 때문에 파괴되어 가던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한을 노래한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실적, 비판적, 묘사적
제재	농무
주제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농민들의 한과 울분
특징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 역설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농민들의 심리를 부각함.

09 (가)의 화자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화면 속에 나오는 새 떼의 비상을 보며, 자신도 새 떼들처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화자의 소망은 애국가의 끝 구절로 돌아오면서 좌절로 바뀐다. 17행의 시어 '하는데'는 화자가 애국가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애국가 구절로 돌아오는 부분이다.

10 ㉔은 아름다운 조국 산천의 모습을 표현한 애국가 가사이다. 그러나 화자는 ㉔의 내용과 반대되는,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㉔은 이러한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㉔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㉔은 ㉔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1 (가)의 화자는 영상 속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흰 새 떼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처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고 소망한다. 따라서 '흰 새 떼들(㉔)'은 현실에 구속된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놓인 존재이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2 이 글은 글쓴이가 삶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과 가치관을 차분하고 설득적인 어조로 담아내어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글쓴이는 감옥에서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리는 순서를 보았던 경험과, 차치리가 탁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갔다는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특정 독자(당신)를 대상으로 한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본질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각각 '발'과 '탁' 등으로 비유하여,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3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은 '본질을 아는 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고,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은 '본질을 모르는 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글쓴이는 실제 생활에 토대를 두고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노인을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으로 제시한 후, 글쓴이 자신을 이와 대조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과 다르게 실제에 기초하지 않은 채 '지붕부터 집을 그리던' 글쓴이의 행동이 '나'를 수식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14 이 글은 겉모습과 형식에 얽매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뒤바뀌어 있는 세태를 지적하고,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보기>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통해 현대 여성의 고달픔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이 두 작품 모두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아두기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이 작품은 출근 버스에 오르자마자 졸고 있는 구자명 씨를 통해 맞벌이 여성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애상적
제재	구자명 씨의 고단한 삶
주제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 구자명 씨라는 개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현대 여성의 고달픔을 구체적으로 드러냄. • 팬지꽃, 안개꽃 등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5) 한국 문학의 발전상

확인 문제

본문 222쪽

01 발전상 02 ① 03 ⑤

작품

1



구부정 소나무

본문 223쪽

01 ④ 02 ① 03 길 떠난 아들 04 ④

01 화자가 이국에서 바라보는 구부정 소나무는 숲의 끝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나무이며, 러시아 땅에서 나는 길쭉한 나무들과 구별되는 외양을 갖고 있다. 이는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화자(작가)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이 시를 통해 이국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3연의 ‘멀리서 아끼는 사랑’은 조국을 떠난 화자가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지, 조국이 화자를 잊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2 [A]에서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만히 눈물을 머금다가 저도 몰래 주먹을 쥐며, 그 감정을 점점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03 3연의 ‘길 떠난 아들’은 화자 스스로를 가리키고, 동시에 망명하여 러시아로 온 작가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04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창작한 문학이다. 이 시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가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한국어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다.

작품

2



소년을 위로해 줘

본문 224~227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④ 05 ② 06 ③
07 ⑤

01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연우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따라서 전지적 작가 시점의 개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서술자의 생각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주인공의 내면세계가 세밀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버스에서 태수와 대화를 나누는 연우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제시되고 있다.

③ ‘하긴 앞뒤로 ~ 비슷한 말인가?’, ‘별로 할 말은 없고, ~ 좀 시큰둥해 보인다’는 뜻인가?’처럼 대화를 하는 듯한 구어체적 문체를 사용하였다.

④ 연우는 점수 때 서류에서 이름을 봤다는 태수의 말에, 앞뒤로 서 있었으니 자신만 태수의 이름을 봤으면 법은 없다며 태수의 상황을 추측하여 전달하고 있다.

02 ‘앞부분 줄거리’에서 연우는 태수의 첫인상을 영 마땅찮게 여기지만, 입술 위에 작은 흉터를 보고는 태수가 순진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언급 외에는 태수에 대한 연우의 편견이 나타나지 않으며, 두 사람은 태수가 연우에게 노래를 들려주며 특별한 갈등 없이 친한 사이로 발전한다.

03 (나)에서 연우는 태수가 건네주는 커다란 헤드폰을 받아서 머리에 쓰면서 버스 안을 훑음 살펴보고, 매우 어색해한다. 이를 통해 연우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A]와 [B]는 「소년을 위로해 줘」라는 곡의 실제 노래 가사이다. 이 글은 본문에 해당 노래의 가사를 삽입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관계 형성과 사건의 전개를 매개하고, 가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합리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기존의 통념에 따르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05 연우가 전율과 가슴 뭉클을 느낀 이유는 노래의 가사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①의 뒤에 나오는 문장인 ‘이건, 내 이야기잖아!’를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06 (라)에서 채영은 처음 만난 연우에게 이전에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연우의 얼굴을 뺨히 쳐다본다. 이를 통해 채영이 당찬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채영이 처음 본 연우가 마실 음료를 자기가 알아맞혀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엉뚱하면서도 밝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연우는 채영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이 전달하기로 한 엽서를 꺼낸다. 이것은 둘이 초면이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려고 한 행동일 뿐, 이것만으로 연우가 매우 급한 성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라)에서 채영은 기억하려고 애쓰며 이마를 찡그린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기억해 내려는 행동일 뿐,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라)에서 연우가 자신을 보았다는 채영의 말을 신경 쓰는 것으로 보아, 연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성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연우가 열등감이 심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현대적 문학은 배경 음악이나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 작품의 내용을 보다 생생히 느끼게 할 수 있다. 문자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것은 전통적 문학의 특징이다.

단원 평가

본문 228~229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현대적 문학

01 (나)는 명절날 고향의 풍요로운 정취와 가족 간의 유대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공간적 상황에 따른 분류상, 한민족 문학이 아닌 지역 문학에 해당한다.

알아두기 백석, 「여우난골죽」

이 작품은 명절을 맞아 큰집으로 나서는 시점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드러낸 시이다. 작가는 자신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의 모습을 토속어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토속적, 회고적, 산문적, 묘사적
제재	명절날 큰집에 모인 친척들과 집안 풍경
주제	명절날 고향의 풍요로운 정취와 가족 간의 유대감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어린이의 시선을 취하여 회상의 형식으로 표현함. - 반복, 열거, 대구 등의 표현 방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평안도 방언, 토속적 소재를 통해 향토적이고 정겨운 분위기를 표현함.

02 (가)의 화자는 타국에서 고국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고국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다.

03 (나)는 명절을 맞아 큰집으로 나서는 시점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평안도 방언과 토속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여 고향의 정겨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나’로 등장하는 어린이의 시선에서 여러 친척들을 소개하고 명절날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④ ‘나는 엄마 아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등에서 대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녀 작은 이녀’, ‘고무의 딸 흥녀 아들 흥동이 작은 흥동이’ 등에서는 시어를 반복하고 가족들의 특색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법들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와 같은 후각적 심상이나, ‘선득선 득하니 찬 것들’과 같은 촉각적 심상 등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04 ㉔은 풍성하게 장만해 놓은 명절 음식들을 나열한 것으로, 이를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시선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나’와 다른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06 (가)에서 연우는 ‘미스터 심드렁이라니, 좀 시큰둥해 보인다는 뜻인가?’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연우가 첫인상에는 다소 시큰둥하게 느껴지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태수나 채영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냉소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07 현대적 문학은 디지털화되어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수용되고 소통되는 특징이 있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글은 인터넷에 연재되어 작가가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독자들끼리도 작품의 감상을 공유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한국 문학의 범주에서 ‘현대적 문학’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5. 문학에 관한 태도



확인 문제

본문 232~233쪽

01 (1) × (2) ○ (3) ○ **02** ③ **03** 상호 소통 **04** ②
05 ③ **06** ④

(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작품



흐르는 북

본문 234~241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② **10** ② **11** 누군가, 한쪽
12 ① **13** ③ **14** ② **15**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16** ③ **17** ① **18** ④
19 ③ **20** ④ **21** ② **22** 데모 **23** ④ **24** ④

01 이 글의 서술자는 신과 같은 입장에서 사건의 속사정, 인물의 심리 변화까지도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특히 민 노인의 심리를 세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02 민대찬은 북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했던 민 노인을 원망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민 노인이 북을 치는 것을 싫어하며, 그의 예술적 기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민 노인은 젊은 시절 북을 치며 떠돌아다니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민대찬은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다.

② 현재 민 노인은 민대찬의 집에 얹혀살고 있다.

⑤ 민성규는 민 노인에게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봉산 탈춤 공연에서 북을 쳐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03 송 여사는 진숙이 어머니에게 민 노인이 탈춤 공연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 노인을 힐문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 노인과 송 여사가 갈등하였다.

오답 풀이 ① 민 노인은 북을 치고 돌아와 흐트러져 있었다.

② 민대찬은 민성규가 돌아오자마자 나무랐으며, 그전에 민대찬이 내적으로 갈등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민성규는 민 노인의 예술혼을 이해하고 민 노인에게 북을 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민 노인과 민성규가 갈등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민대찬과 송 여사는 모두 민 노인이 민성규와 어울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민대찬과 송 여사가 한편이 되어 민성규를 나무랐다.

04 귀뿔은 ‘상대편이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일깨워 줌.’을 의미하는 말이다.

05 송 여사는 민대찬에게 민 노인이 탈춤 공연에서 복을 친 일을 전한다(ㄱ). 이를 알게 된 민대찬이 민 노인에게 공연 참여를 제한한 민성규를 꾸짖으며, 민대찬과 민성규가 갈등을 겪는다(ㄷ).

오답 풀이 ㄴ. 송 여사는 민대찬과 함께 민성규를 나무랐다.

ㄹ. 민대찬이 성을 내는 이유를 모르고 있던 민성규가 송 여사의 말을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으나, 민성규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06 송 여사의 말을 들은 민성규는 민대찬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알고 씩 웃음을 흘린다. 이를 통해 민성규가 민대찬의 분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이 글에서 인물들이 갈등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복’에 대한 인물들의 가치관의 차이이다. 민 노인은 복을 치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민대찬은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내야 했다. 그로 인해 민대찬은 민 노인이 복을 치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이 사건 전반에 걸쳐 갈등의 요인이 된다.

08 (다)~(라)에서는 민성규와 민대찬의 대화가 중심이 된다. 이 대화에서 민성규와 민대찬은 민 노인이 복을 치는 행위를 두고 맞서고 있다. 이를 통해 민성규와 민대찬, 민대찬과 민 노인의 갈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민성규는 상호 이해를 통한 발전적 화합을 중시하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09 민성규와 민대찬의 갈등은 민 노인이 복을 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글은 ‘복’을 둘러싼 등장인물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민성규와 민대찬의 갈등을 단순히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할아버지는 기꺼이 응하지 않았을 게다. 네가 유혹했어.”를 통해 민대찬은 민성규가 민 노인을 충동질해서 복을 치게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민성규는 민 노인이 복에 재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할아버지를 그런 자리에 모신 건, 그러나 사과할 것이 못 됩니다.”를 통해 민성규의 당당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⑤ 민성규는 민대찬의 질책을 듣고도 웃기만 할 뿐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는다. 민대찬은 이런 민성규에게 더욱 화를 내고 있다.

10 민성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지만,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을 중재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11 민 노인은 복을 치는 재능을 갖고 있고,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민 노인을 가리키는 표현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갖고 있는 ‘누군가’와 ‘기회에 편승’해야 하는 ‘한쪽’이다.

12 민대찬은 민성규가 민 노인을 공연에 참여시킨 것과 지금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기특하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방어적인 표현으로, 민성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민대찬이 자신의 심리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13 민성규가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민 노인은 응접실로 나온다. 그리고 민대찬은 민 노인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민 노인에게는 시선도 돌리지 않고 민성규에게 방에 들어가 잠이나 자라고 한다. 따라서 민 노인이 등장하여 민대찬과 민성규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송 여사는 민대찬에게 대드는 민성규를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라며 꾸짖을 뿐, 민성규를 달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송 여사가 민성규를 다독이는 장면은 부적절하다.

15 민대찬과 민 노인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과거 민 노인이 복을 치느라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성규는 민대찬과 민 노인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민 노인이 가족을 버린 것은 비난할 만한 일이지만 민 노인의 예술혼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에서 민성규는 현실적 가치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대찬의 입장 역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성규가 민대찬에게 빈정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7 민 노인은 젊은 시절에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복을 치며 떠돌아다녀서, 현재 아들 민대찬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즉, 복으로 상징되는 민 노인의 삶은 자유로운 예술 정신을 추구했던 삶으로 볼 수 있다.

18 이어지는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를 통해 민대찬의 냉소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민대찬은 민 노인의 예술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19 제목 ‘흐르는 복’에서 ‘복’은 민 노인의 삶, 예술혼, 민 노인과 민대찬 사이의 갈등의 원인, 민 노인과 민성규를 이어 주는 매개체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흐른다’라는 말은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도 민 노인의 복소리가 손자인 민성규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흐르는 복’은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사)~(아)에서 민성규가 데모에 참여했다가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복’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되고 있다.

21 민 노인 역시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민성규가 데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민성규의 일을 금급해하며, 송 여사에게 매달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22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강압적인 사회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 글의 ‘데모’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 민성규 역시 당대의 민중들처럼 발전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데모에 참여하였다.

23 “그런데 오빠는 할아버지의 복소리에 푹 빠져 있고, 솔직히 저는 잠음으로만 들려요.”에서 민수경이 민 노인의 복소리를 잠음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ㄴ). 또한 민수경은 “할아버지

이 북으로 팝송 반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말하며 민 노인을 위로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ㄷ).

24 민 노인은 자유로운 예술 정신을 추구하며 이리저리 방랑했다. ‘역마살’은 이러한 민 노인의 삶을 의미한다. 민성규는 진보와 ‘화합’을 중시하며 새로운 세계를 위해 행동하는 인물로, ‘데모’가 이러한 민성규의 삶을 보여 준다. 민 노인과 민성규는 각각 예술혼과 진보, 화합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택하고 있다.

(2) 문학의 생활화와 공동체의 문화 발전



작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본문 242쪽

01 ③
02 ④
03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04 ⑤

01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마라!’와 같이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확신에 찬 태도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② 이 시에서는 모순된 이미지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에서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미래의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명암의 대비와 대상의 이중적인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여 긍정적인 삶의 자세라는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02 이 시는 현재의 고통을 견디면 미래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고 현재의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소중해 질 것이므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자고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삶에서 당면한 절망과 슬픔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④의 하늘은 이 시를 읽고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3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04 1연에서 ‘절망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미래에 ‘기쁨의 날’이 찾아온다고 하였다. 즉,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는 ‘절망의 나날’이고, 미래의 긍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는 ‘기쁨의 날’이다. 이 시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대해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 내면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단원 평가

본문 243~244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③
05 ②
06 ④
07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01 이 글에서 민성규는 데모에 참여했다가 잡혀가게 되는데, 데모는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02 이 글은 예술혼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 노인과 명예와 실리라는 현실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대찬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글의 인물들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세대교체에 따른 필연적인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예술혼을 좇는 민 노인은 이상과 본원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대찬은 현실과 속물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복’은 민 노인과 민대찬이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자 민 노인과 민성규를 이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⑤ 민대찬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 민 노인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민성규는 편견 없이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03 민성규가 민 노인을 공연에 참여시킨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대찬과 송 여사뿐이다. 민성규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04 민성규는 민 노인의 재능과 예술혼을 존중하여, 민 노인에게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민수경은 민성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민 노인을 위로하고 민 노인의 예술 정신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과 ㉡ 모두 민 노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 풀이 ① 민 노인을 원망하고 민 노인에게 분노하고 있는 인물은 민대찬이다.
 ② 민 노인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민 노인을 무시하고 있는 인물은 민대찬과 송 여사이다.
 ④ 민 노인의 힘들었던 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민성규와 민수경 모두 민 노인의 과거에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민성규는 민 노인의 예술혼을 존경한다. 반면 민수경은 민 노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그의 예술혼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다.

05 이 시에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구에서 ‘삶’에 인격을 부여하여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ㄱ). 또한 고통스러운 ‘현재’와 행복하고 기쁜 ‘미래’를 대비하여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ㄴ. 이 시에서는 ‘~리라’와 같은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음구가 쓰이지는 않았다.
 ㄷ. 이 시에서는 추상적 개념인 ‘현재’와 ‘미래’를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이들이 구체적 대상을 통해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

06 ㉠은 현재 겪고 있는 슬픔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므로 이를 참고 견디 내자는 뜻이지, 현재의 삶이 덧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07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에서는 ‘법’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종결함으로써 단정적인 어조를 형성하고,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확신에 찬 태도로 전달하고 있다.